

제 6 장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박한울*·김형진**·김서영***·강전상****

1. 사과

- 1.1. 수급 동향
- 1.2. 수급 전망

2. 배

- 2.1. 수급 동향
- 2.2. 수급 전망

3. 감귤

- 3.1. 수급 동향
- 3.2. 수급 전망

4. 복숭아

- 4.1. 수급 동향
- 4.2. 수급 전망

5. 포도

- 5.1. 수급 동향
- 5.2. 수급 전망

6. 단감

- 6.1. 수급 동향
- 6.2. 수급 전망

7. 수입과일

- 7.1. 수입 동향
- 7.2. 수입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phu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junjang0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sy1208@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skang1@krei.re.kr

요약

1) 수급 동향

- 2024년 주요 과일(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0만 8,900ha이었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포도와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그 외 과일 재배면적은 고령화, 도시화, 과수화상병 등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 2024년 주요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69만 톤으로 추정된다. 사과와 단감 생산량은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이 줄어 전년 대비 각각 16.6%, 12.2% 증가하였다. 포도·복숭아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각각 1.6%, 3.9% 증가하였다. 반면, 배·감귤 생산량은 여름철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각각 2.9%, 6.3% 감소하였다.
- 2024년 11월까지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은 2023년산 국내 과일 생산량 감소로 도입된 할당 관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72만 5천 톤이었다.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하였고, 포도 등 온대과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였다.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였다.

2) 수급 전망

- 2025년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0만 7,900ha로 전망된다. 포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유목면적이 줄어 2024년 대비 0.5% 감소할 전망이다. 사과·배·감귤·단감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이 줄어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주요 과일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작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경우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 대비 5.7% 많은 179만 톤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2025년 이후 연평균 0.8% 감소하여 2034년에는 10만 800ha로 전망된다. 과일(신선·건조·냉동) 수입량은 연평균 0.6% 증가하여 2034년에는 87만 톤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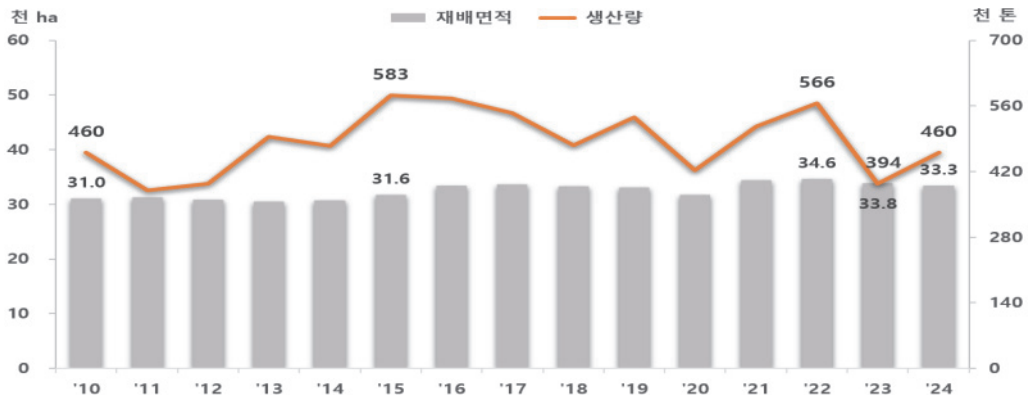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사과 재배면적은 2017년 3만 3,601ha까지 확대되었으나, 2020년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 노목 위주의 폐원지원 사업과 타 작목 전환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대 이후 농가 수익성 증가로 2022년 3만 4,603ha까지 확대되었다.
- 2024년 재배면적은 3만 3,313ha로 전년(2023년) 대비 1.4% 감소하였다. 2024년 유목면적은 품종갱신 및 신규 식재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성목면적은 고령화 등으로 폐원이 늘어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 2024년 기준, 성목면적 비중은 72.2%이며, 유목면적 비중은 전년 대비 0.8%p 상승한 27.8%이다.
- 사과 생산량은 재배기술 및 품종 개량으로 단수가 늘어 2010년대 평균 49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20년과 2023년에는 재배면적 감소와 빈번한 기상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줄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2020년과 2023년 사과 생산량은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각각 21.1%, 30.3% 감소하였다.
- 2024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2023년) 대비 16.6% 증가한 46만 톤이었다. 이는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이 감소하여 성목단수가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병해충 발생 감소로 정품과(시장 출하 가능 물량) 비율¹⁾이 증가하였으며, 당도 및 모양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여름철 고온으로 과비대가 부진²⁾하여 대과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수확기 일조량 감소로 착색이 부진하였다.

그림 6-1 |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표 6-1 | 사과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31.0	31.6	33.0	31.6	34.4	34.6	33.8	33.3
성목면적	20.6	22.0	23.9	23.3	26.3	25.8	24.7	24.1
유목면적	10.4	9.7	9.0	8.3	8.1	8.8	9.1	9.4
성목단수	2,236	2,654	2,239	1,809	1,962	2,197	1,598	1,912
생산량	460	583	535	422	516	566	394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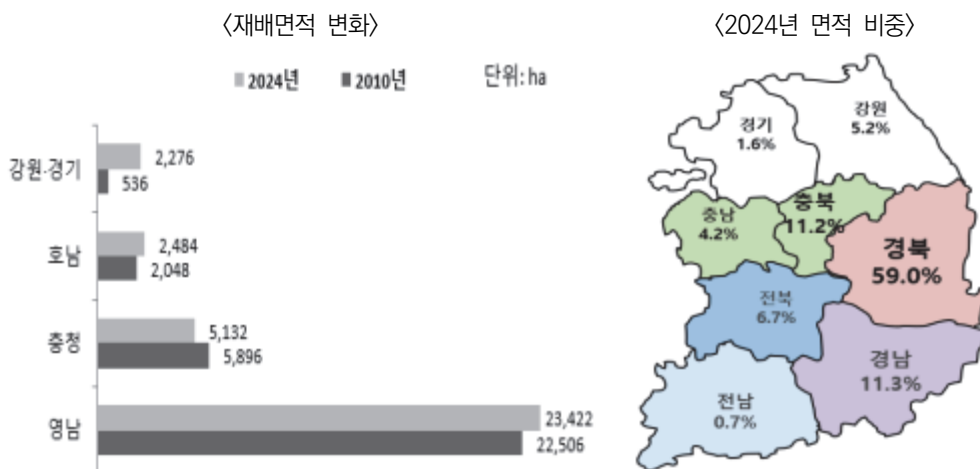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지역별 사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최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2024년 재배면적은 2만 3,422ha로 2010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면적 비중이 2.3%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70% 수준을 유지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농업관측센터 조사치(2024.12.), 정품 비율: 평년 64% → 2023년산 57% → 2024년산 58%
 2) 농업관측센터 조사치(2024.12.), 대과 비율: 평년 24% → 2023년산 23% → 2024년산 21%, 대과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과 생산이 늘어 대과 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4년 충청지역 재배면적은 5,132ha이며, 2010년 대비 13.0% 감소하였다. 이는 과수화 상병 발생과 도시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된 결과이다. 면적 비중은 2010년 대비 3.6%p 하락한 15.4%로 나타났다.
- 사과 신규 산지로 떠오른 강원·경기지역의 2024년 재배면적은 2,276ha로, 2010년 대비 재배면적이 325%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배지 북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배 확대 지원 사업 등으로 강원·경기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호남지역의 경우, 전북지역 고랭지를 중심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2024년 재배면적은 2010년 대비 21.3% 증가한 2,484ha이며, 면적 비중은 7.5%이었다.

그림 6-2 | 사과 지역별 재배면적 변화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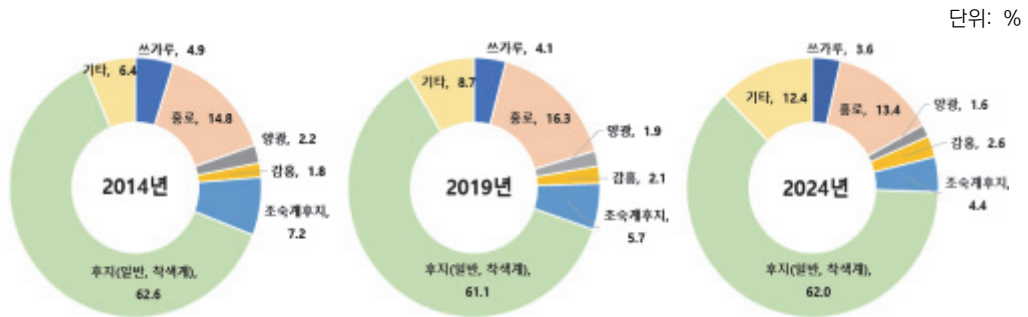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2024년 기준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저장성이 강한 후지가 6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추석용 사과인 홍로(13.4%), 기타 품종(12.4%), 조숙계후지(4.4%) 순이다. 재배면적 비중은 품종의 가격과 생산성에 따라 품종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품종 확대로 재배품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 쓰가루·양광·후지계열 품종은 타 품종에 비해 가격이 낮고, 병해에 취약하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면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신품종 보급사업 등 품종 다양화가 진전되며 기타 품종의 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름 사과 썸머킹, 홍로와 양광 대체품종인 아리수의 면적이 늘었고, 특히 고당도 품종인 감홍도 타 품종에 비해 가격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착색관리가 필요없어 노동력이 절감되는 시나노골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후지계열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재배 비중으로 보면 품질이 좋은 착색계후지(미시마·미안마·후브라스 등)로 전환되면서 일반·착색계 후지는 6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숙계 후지는 재배면적과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3 |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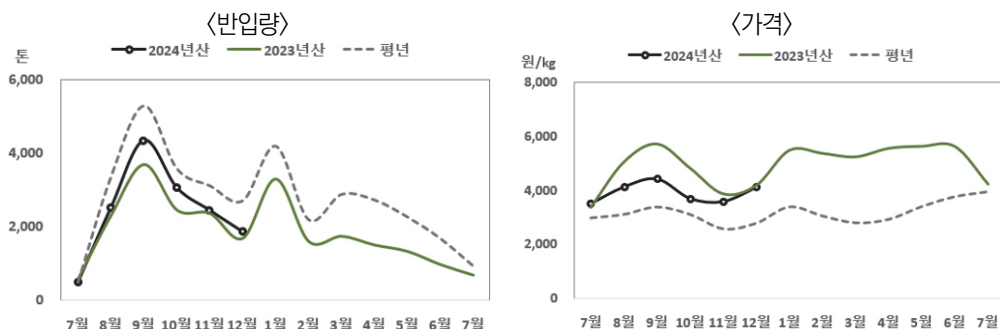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1.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24년산(7~12월) 사과 가격은 양호한 작황으로 생산량이 늘어 반입량이 11.0% 증가하며 전년(2023년) 대비 13.2% 하락한 3,897원/kg이었다.
 - 7월 햇사과 가격은 수확 지연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13.1%)로 전년 대비 4.3% 상승한 3,506원/kg이었던 반면, 7월 전체 사과 평균 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장사과 가격이 햇사과 출하로 하락하며 전년 대비 11.3% 낮은 3,905원/kg이었다.
 - 8월 이후 사과 가격은 반입량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15.6% 하락한 3,983원/kg이었다.

I 그림 6-4 | 2024년산 사과 반입량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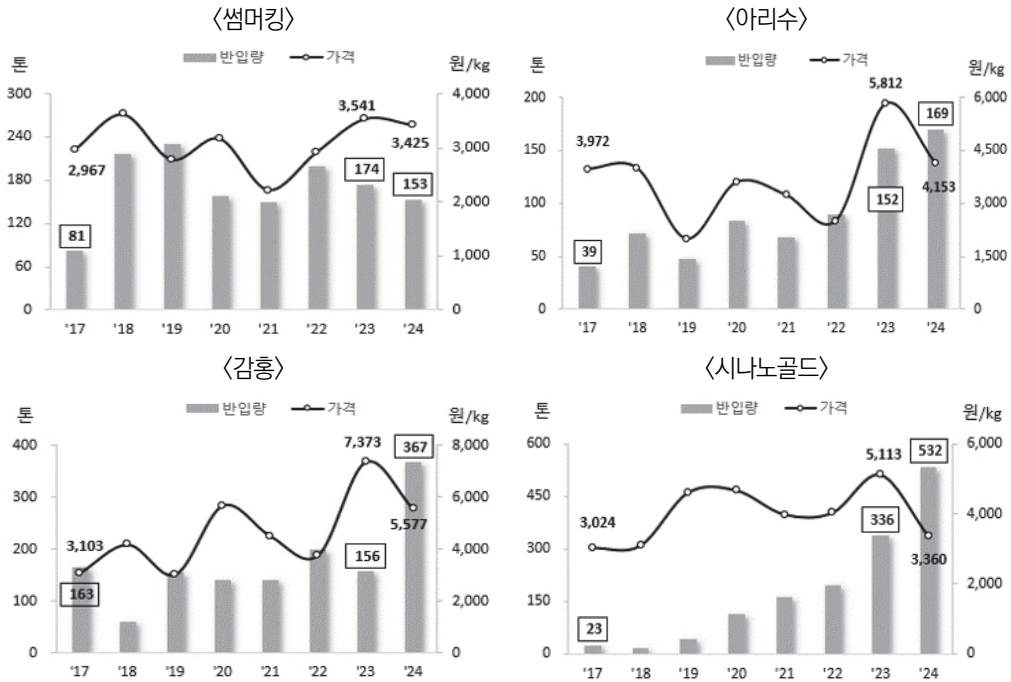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평년은 2019~2023년산 기준이며, 7월은 저장사과와 기타를 제외한 햇사과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사과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껌머킹 반입량(7~8월)은 전년(2023년) 대비 12.0% 감소하였으나, 쓰가루 반입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3.3% 하락한 3,425원/kg이었다. 다만, 껌머킹 가격이 쓰가루(3,335원)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아리수는 재배면적 증가와 유목의 성목화로 반입량이 2017~2024년 동안 연평균 23.2% 증가하였으며, 가격도 2017년 3,972원/kg에서 2023년 5,812원/kg까지 연평균 6.5% 상승하였다.
 - 2024년 아리수 가격(8~11월 평균)은 이른 추석과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8.5% 하락한 4,153원/kg였고, 홍로(7~11월) 가격은 4,518원/kg이었다. 아리수는 숙기가 홍로보다 늦어 추석이 이른 시기에는 명절 성수기 수요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홍 반입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3%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도 연평균 8.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선호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농가의 식재 의향이 높아 향후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시나노골드는 반입량이 2017년 23톤에서 2024년 532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산 저장 출하를 고려하면 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신규 식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 9~11월 가격이 전년 대비 34.3% 하락한 3,360원/kg에 형성됨에 따라 향후 농가의 식재 의향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5 사과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은 연산(7월~내년 6월) 기준
 자료: 가락시장 도매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통계청

- 2010~2023년산 출하 시기별 사과 반입 비중은 수확기(7~11월) 반입량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 저장기(12월~익년 3월)는 34.4%, 장기 저장기(익년 4~6월) 17.9% 순이었다.
- 시기별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장기 저장기에 출하되는 사과 도매가격이 수확기와 단기 저장기에 출하된 가격보다 7.9% 높게 형성되었다. 장기 저장기 사과 도매가격과 반입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0.736)가 있으며, 가격과 반입 비중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2개년(2022~23년산) 장기 저장 사과 도매가격은 수확기·단기 저장기 대비 17.4% 높게 형성되어 사과 재배농가의 2024년산 사과의 장기저장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사과 출하 시기별 도매가격 및 반입 비중('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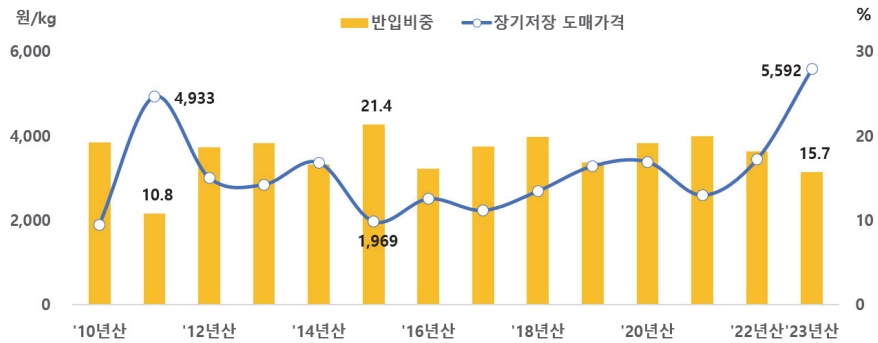
단위: 원/kg, %

구분	평균 가격	반입 비중	변이계수	
			가격	반입 비중
수확기	2,906	47.7	0.225	0.061
단기 저장기	2,887	34.4	0.272	0.052
장기 저장기	3,126	17.9	0.334	0.146

주 1) 변이계수는 표준편차/평균

2)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그림 6-61 장기저장 사과 반입 비중과 도매가격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1.1.3. 수출 동향

- 2011년 이후 사과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은 1% 미만이다. 수출용 사과는 대부분 후지 품종으로 후지 수확기 및 단기 저장기인 11월~익년 1월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다.
- 사과 수출량은 국내 사과 생산량 및 내수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21년과 2022년산 사과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와 내수 가격 하락으로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2023년산 사과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와 내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80.8% 줄었다. 2023년산 사과 수출단가는 전년 대비 47.6% 상승한 4.2달러/kg이었다.
- 사과 수출 대상국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중국산 과일이 검역문제로 수입되지 못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2023년산 기준 사과 최대 수출 대상국은 대만으로 전체 사과 수출량의 28.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러시아(16.8%), 홍콩(16.6%), 베트남(14.6%) 순이다.

- 2024년산 7~12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166톤이었다.

표 6-3 사과 수출량

단위: 톤

구분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1,392	1,463	1,626	312	166	1,478
대만	621	684	914	89	40	711
베트남	249	280	247	45	9	260
싱가포르	148	140	135	14	0	141
홍콩	131	196	195	52	11	173
러시아	109	64	13	53	51	75
기타	133	98	122	60	55	118

주 1) 수출량은 7월~익년 6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7~12월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관세청

1.2. 수급 전망

1.2.1. 2025년 전망

- 2024년산 사과 저장량(2025년 1~6월)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8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생육기 작황 호조로 후지 생산량이 늘었으며, 최근 2개년 저장기 사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농가의 저장 의향이 증가하였다.
 -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4년 12월 중순 사과를 저장하고 있는 농가 비중은 전년(51.0%) 대비 5.6%p 상승한 56.6%이었다.
- 2025년 설 성수기(설 전 3주간, 1.8~28.)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이 늘어 전년 대비 2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농가들은 대과 위주의 상품성이 있는 사과를 설 성수기에 출하하고, 중소과 위주로 장기 저장된 사과는 5월 이후 출하하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 설 성수기에 출하될 사과와 당도와 모양은 전년에 비해 좋으며, 대과 위주의 상품 출하로 대과 비중은 전년(30.7%) 대비 증가한 32.4%, 특상품 비중도 전년(20.0%) 대비 높은 23.6%로 조사되었다. 다만, 생육기 고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색택과 경도 등은 전년 대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저장량이 늘고 5월 이후 농가의 출하 의향이 높아, 전년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출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25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0.5% 감소한 3만 3,136ha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고목 갱신 및 품종 전환, 신규 식재(2축 및 다축과원 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나, 성목면적은 고목 폐원,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으로 3.2% 감소할 전망이다.

표 6-4 | 2025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25	9,845	23,291	33,136
2024	9,247	24,066	33,313
증감률	6.5	-3.2	-0.5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품종별 재배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후지계열·홍로·쓰가루·양광 재배면적은 과거의 추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조숙계 후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이 어려운 만생종 후지에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감홍 재배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과원 조성사업 지원과 농가 식재의향이 높아 전년 대비 11.6%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품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아리수, 초홍, 이지플 등 국내 육성 품종 및 신품종 신규 식재가 늘어나고, 시나노골드 재배면적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2024년 산 가격 하락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6-5 | 2025년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전년 대비)

단위: %

쓰가루	홍로	양광	감홍	조속계후지	후지	기타
-1.3	-2.9	-6.4	11.6	1.6	-1.2	2.9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지역별로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은 감홍 생산 확대, 다축과원 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충청·호남지역은 노목 폐원, 노동력 감소, 고령화, 경영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지역은 재배지 북상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속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나, 지역적 한계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6-6 | 2025년 사과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강원	경기	충청	호남	영남
2025	1,797	515	5,031	2,440	23,354
2024	1,748	528	5,132	2,484	23,422
증감률	2.8	-2.5	-2.0	-1.8	-0.3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1.2.2. 중장기 전망

- 사과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이 감소하며 2025년 3만 3,100ha에서 2034년 3만 800ha로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품종 갱신, 고령화에 따른 폐원 등으로 2034년 2만 1,200ha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목면적은 노목 및 품종 갱신, 신규 식재 등으로 2029년까지 1만 ha까지 증가 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사과 생산량은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4.3% 증가한 48만 톤으로 예상되나, 기상 요인으로 인한 생육 상황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후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면서 2034년에는 45만 5천 톤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해예방시설 보급 확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재배기술 향상, 품종 개량 등으로 단수가 늘어 생산량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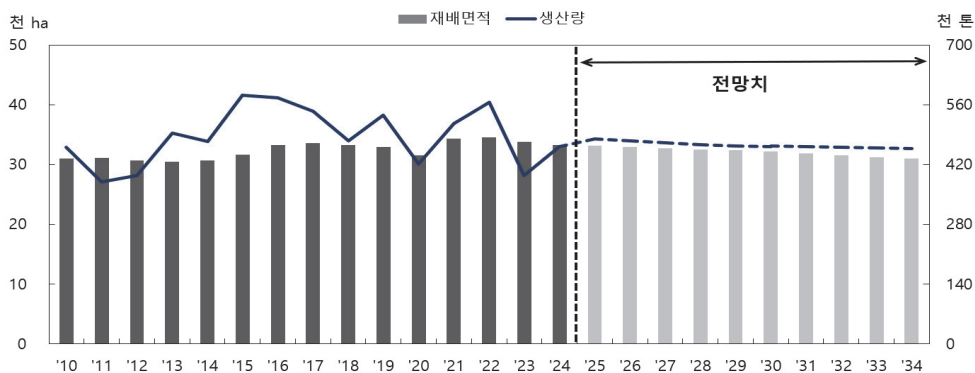
- 2025년 사과 1인당 소비량은 사과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4.4% 증가한 9.3kg으로 전망되나, 이후 점진적인 생산량 감소와 인구 감소로 2029년 이후 9.0kg에서 정체 또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4년에는 8.9kg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6-71 사과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24	전 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33.3	33.1	32.3	30.8
성목면적	천 ha	24.1	23.3	22.1	21.2
유목면적	천 ha	9.2	9.8	10.2	9.6
생산량	천 톤	460	480	464	455
수출량	천 톤	0.8	1.3	1.4	1.7
1인당 소비량	kg	8.9	9.3	9.0	8.9

주: 수출량은 7월~익년 6월 기준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71 사과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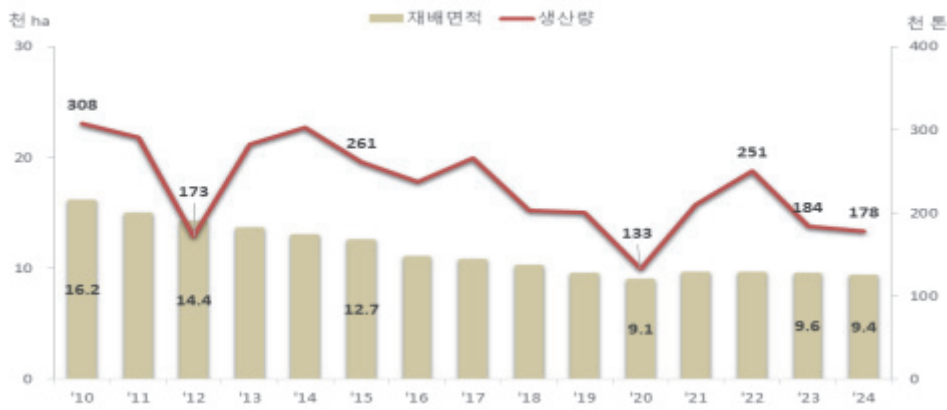
Chapter 2 배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배 재배면적은 도시화, 농가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2010년 16,239ha에서 2020년 9,091ha로 연평균 5.6% 감소하였다. 이후 배 재배면적은 출하시기 분산, 가격 안정을 위한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이 시행되면서 평균 9,500ha 수준을 회복하였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등 잦은 이상 기상 현상으로 매년 생산량 변화폭이 커지고 있다.

그림 6-8 |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2024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대비 1.9% 감소한 9,421ha이었다.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892ha이며, 성목면적은 경영비 증가 및 고령화, 토지 수용 등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8,529ha이었다.
- 2024년 배 생산량은 전년(2023년) 대비 2.9% 감소한 17만 8천 톤이었다. 봄철 기상 여건이 좋아 착과수는 증가하였으나, 여름철 지속된 폭염으로 과비대가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남부지역에서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중부지역에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여 개화기 저온 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표 6-81 배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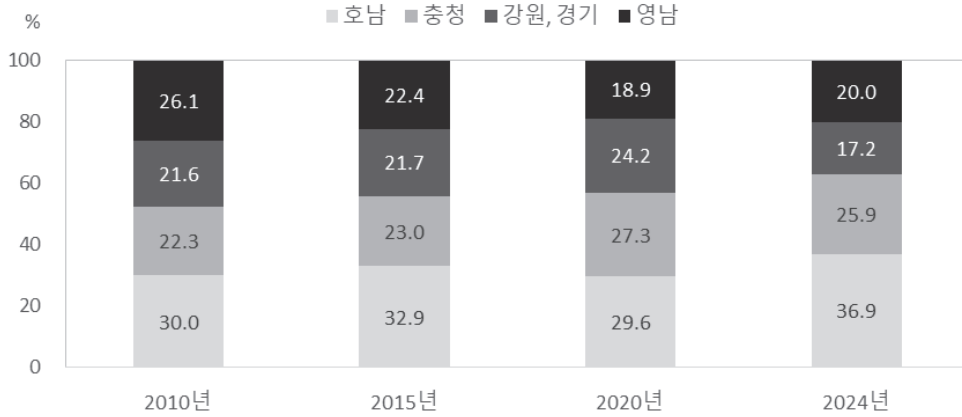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 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16.2	12.7	9.6	9.1	9.7	9.7	9.6	9.4
성목면적	14.8	11.8	9.1	8.5	9.1	9.0	8.8	8.5
유목면적	1.5	0.9	0.5	0.6	0.6	0.6	0.8	0.9
성목단수	2,084	2,215	2,212	1,554	2,305	2,780	2,084	2,092
생산량	308	261	201	133	210	251	184	178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2024년 지역별 재배 비중은 호남지역이 36.9%로 가장 높고 충청지역 25.9%, 영남지역 20.0%, 강원·경기지역 17.2%이었다.
- 지역별 재배 비중은 최근 들어 호남과 충청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재배 비중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이었으나, 강원·경기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이 도시화로 빠르게 감소하면서 호남·충청지역 재배 비중이 증가하였다.
 - 호남지역 재배면적은 나주시의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2018)으로 2020년 (2,691ha) 이후 증가하여 2022년에 3,500ha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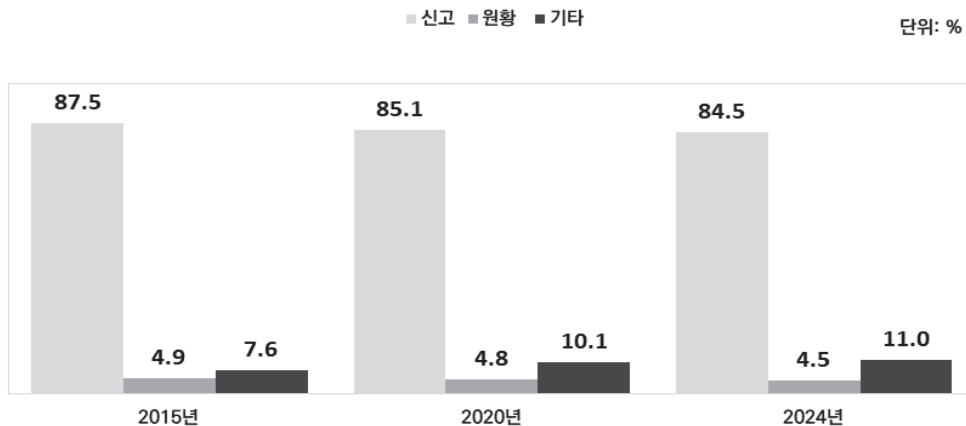
그림 6-9 | 배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2024년 신고 품종의 재배면적 비중은 84.5%, 원황 4.5%, 기타 품종 11.0%로 추정된다.
 - 신고 품종의 재배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농가 고령화로 타 품종으로 전환하기보다 폐원하는 과원이 많아 재배 비중 감소폭이 크지 않다.
 - 반면, 기타 품종 재배면적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고보다 출하 시기가 빠른 조중생종에 대한 농가 선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10 | 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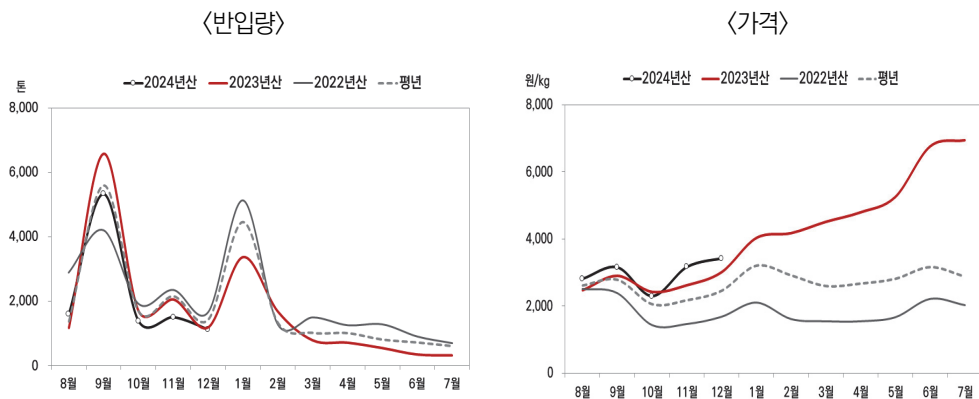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24년 1~7월 출하된 2023년산 저장 배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35.2%)로 전년 동기(1,829원) 대비 185.0% 상승한 5,212원/kg이었다.
 - 2023년산 배 생산량은 개화기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어 전년 대비 26.8% 감소하였으며, 저장량도 큰 폭으로 줄어 저장 출하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8~11월 출하된 2024년산 배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14.7%)로 전년 동기(2,614원) 대비 9.3% 상승한 2,858원/kg이었다.
 - 8월 가격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높게 형성되었던 2023년산 저장 배 가격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13.3% 상승하였다. 9월 가격은 이른 추석 영향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4% 상승하였다.
 - 10월 가격은 추석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5.7% 하락하였으나, 11월 가격은 심각한 고온 및 열과 피해로 반입량이 감소(27.1%)하면서 전년 대비 20.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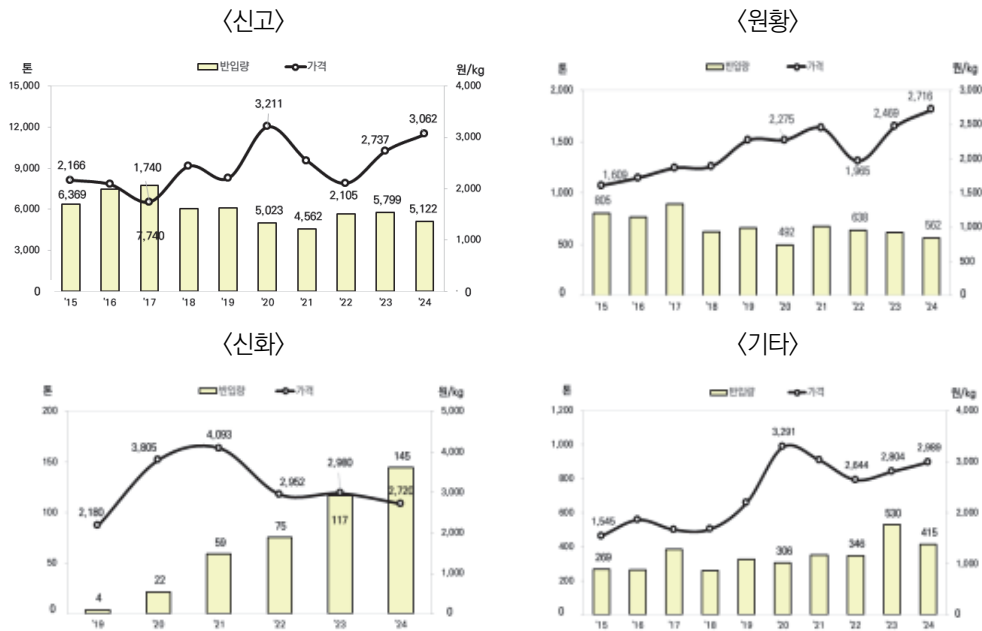
그림 6-11 | 2024년산 배 반입량 및 가격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품종별로, 신고 수확기(9~11월) 반입량은 2020년 이후 5천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반입량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3년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은 추석(‘23년 9월 29일) 영향으로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사과 등 대체 과일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2024년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이른 추석(‘24년 9월 17일) 영향으로 반입량이 11.7% 줄면서 전년 대비 11.9% 상승한 3,062원/kg이었다.

그림 6-12 | 배 수확기(8~11월)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기타에는 화산, 추황, 슈퍼골드, 창조 등 국내 육성품종이 포함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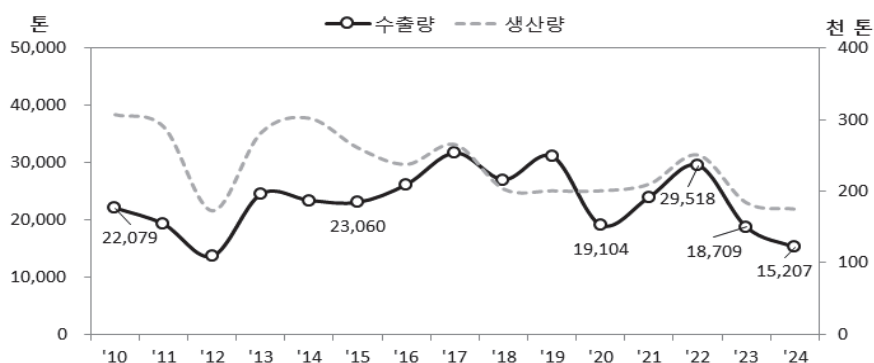
- 원황 가격(8~11월)은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황 품종은 고령화로 폐원하거나, 타 품종으로 전환하여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출하기 가격은 반입량 감소(8.9%)로 전년 대비 10.0% 상승한 2,716원/kg이었다.
- 신화 가격(8~11월)은 반입량이 증가하나, 2022년 이후 2,900원/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신화 품종은 추석 출하용으로 농가 선호도가 높아 재배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출하기 가격은 반입량 증가(24.1%)로 전년 대비 8.8% 하락한 2,720원/kg이었다.

- 기타 품종 반입량(8~11월)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영향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24년 기타 품종 출하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21.7%) 전년 대비 6.6% 상승한 2,989원/kg이었다.

2.1.3. 수출 동향

- 신선배 수출량은 평년 기준 2만 4,208톤으로 생산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감에 따라 매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배 수출량은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국가별 수출 비중은 평년 기준 미국 40.0%, 대만 37.7%, 베트남 13.6%로 세 국가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단가가 높은 미국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베트남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6-13 | 신선배 수출량



주: 수출량은 8월~익년 7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8~12월 합계임.
자료: 관세청

- 2024년산(8~12월) 배 수출량은 전년 동기(1만 7,233톤) 대비 11.8% 감소한 1만 5,207톤이었다.
- 2024년산(8~12월) 배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8,376톤) 대비 0.9% 감소한 8,298톤이었다. 동기간 대만 수출량은 전년 동기(5,106톤) 대비 11.8% 감소한 4,501톤이었다. 베트남 수출량은 전년 동기(1,832톤) 대비 44.2% 감소한 1,022톤이었다.

표 6-9 | 신선배 국가별 수출량

단위: 톤

구분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31,045	19,104	24,003	29,518	18,709	15,207	24,208
미국	10,934	8,437	9,025	11,161	9,077	8,298	9,679
대만	11,437	6,529	9,800	11,082	5,578	4,501	9,137
베트남	6,208	2,419	2,926	4,558	2,018	1,022	3,301
기타	2,466	1,718	2,252	2,717	2,036	1,386	2,251

주 1) 수출량은 8월~익년 7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8~12월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관세청

2.2. 수급 전망

2.2.1. 2025년 전망

- 2025년 1~7월에 출하될 2024년산 저장 배 물량은 전년(2023년산) 대비 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지속된 폭염으로 추석 이후 수확량이 줄어 저장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4년 11~12월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으나, 감모율 증가로 인해 저장량 감소폭은 생산량 감소폭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설 성수기(설 전 3주간, 1.8~28.) 출하량은 저장량이 줄어 전년 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장성이 좋지 않아 장기 저장이 어려워 농가의 설 성수기 출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설 성수기 출하량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저장 배 당도는 전년 대비 양호하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크기, 외관, 경도는 부진하다.
- 2025년 배 재배면적은 유목면적은 증가하나, 성목면적이 줄어 전년(2024년) 대비 1.9% 감소한 9,244ha로 전망된다.
 -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신규 식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922ha, 성목면적은 과수 화상병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8,322ha로 전망된다.

표 6-10 | 2025년 배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25	922	8,322	9,244
2024	892	8,529	9,421
증감률	3.4	-2.4	-1.9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강원·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은 전년 대비 각각 2.8%, 2.9% 감소하고 호남과 영남지역은 전년 대비 각각 1.2%,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1 | 2025년 지역별 배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강원·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2025	1,579	2,363	3,437	1,865	9,244
2024	1,624	2,434	3,479	1,884	9,421
증감률	-2.8	-2.9	-1.2	-1.0	-1.9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은 고령화로 폐원하는 농가가 늘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4%, 0.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신화와 황금 품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5%, 0.5% 증가하나, 화산·추황·기타 품종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 영향으로 국내 육성품종 재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확시기가 늦어 기상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고보다 이른 수확이 가능한 신화 품종의 선호도가 높다.

표 6-12 | 2025년 품종별 배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전년 대비)

단위: %

신고	원황	신화	화산	황금	추황	기타
-2.4	-0.3	2.5	-1.7	0.5	-1.4	-3.1

주: 기타에는 감천, 만풍, 장십량, 풍수, 만수, 창조, 조이스킨 등이 포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2.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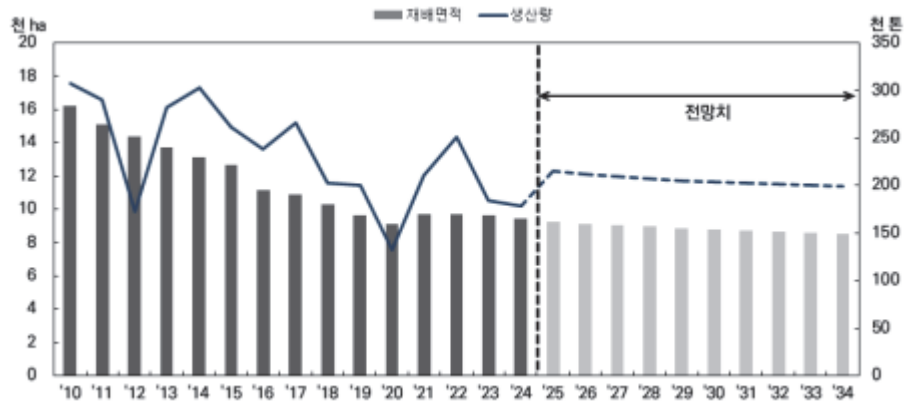
- 배 재배면적은 2025년 9,200ha에서 2034년 8,500ha로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영향으로 1천 ha 내외로 유지되나, 성목면적은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배 생산량은 단수가 늘어 21만 5천 톤으로 회복되나,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후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2034년 19만 9천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 수출량은 국내 소비 감소에 따른 수출 확대 노력으로 2034년 2만 8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5년 3.7kg으로 회복하나, 생산량이 줄면서 2034년 3.4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3 | 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9.4	9.2	8.9	8.5
성목면적	천 ha	8.5	8.3	7.9	7.6
유목면적	천 ha	0.9	0.9	1.0	0.9
생산량	천 톤	178	215	205	199
수출량	천 톤	16.6	21.7	24.1	27.5
1인당 소비량	kg	3.1	3.7	3.5	3.4

주: 수출량은 8월~익년 7월 기준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14 배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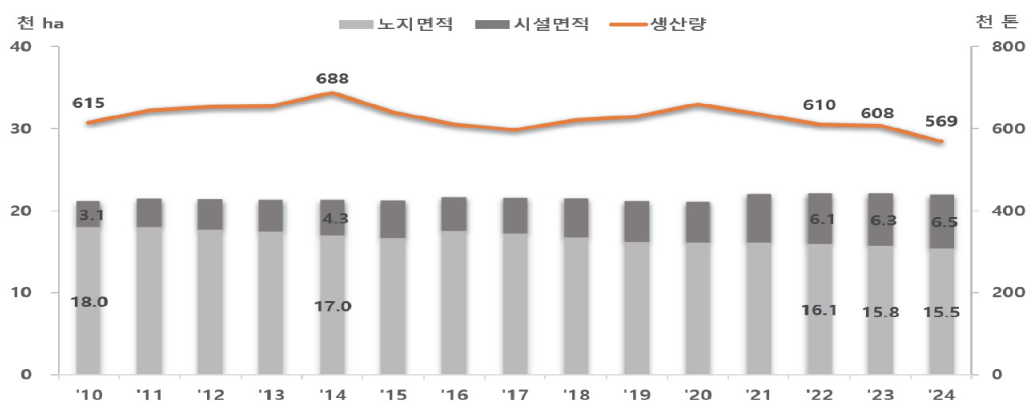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감귤 재배면적은 제주도 내 재배면적 2만 ha 유지 정책 등으로 큰 변화 없이 2020년까지 2만 1천 ha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 재배면적은 수익성이 좋은 하우스온주 및 만감류 재배면적 증가와 내륙 지역의 재배 증가로 2만 2천 ha를 넘어섰다.
-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며 호남·영남·충청 일부 지역에서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 내륙산 감귤의 경우, 시설재배가 많고 만감류 재배 비중이 높다. 내륙 감귤 재배면적 비중은 1% 미만이며, 최근 생산비 상승과 해거리 및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 2020년 이후 재배면적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024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대비 0.7% 감소한 2만 1,951ha이다. 이 중 성목면적은 고령화, 고목화 폐원 등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2만 227ha였으나, 유목면적은 품종전환, 노목 갱신 등 식재가 늘어 19.3% 증가한 1,724ha이었다.
- 2024년 노지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만 5,457ha이며, 시설면적은 3.3% 증가한 6,494ha이다.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신축 및 증설로 시설면적 비중은 2016년 18.7%에서 2024년에는 29.6%로 상승하였다.

그림 6-15 |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감귤 생산량은 2010년 이후 평균 63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종과 작형이 다양화되면서 해거리와 기상여건 영향으로 인한 변동폭이 줄었다. 감귤 성목단수는 2010년대 10a 당 3,128kg이었으나, 2020년 이후 해거리 현상 심화, 생리낙과량 증가, 열과 발생 등으로 단수가 3,052kg으로 감소하였다.
- 2024년산 감귤 생산량은 전년(2023년) 대비 6.3% 감소한 56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하우스온주 생산량은 전년도 가을철 고온으로 착과량이 감소하였고, 생육기(2024년 2~3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리낙과 증가로 전년 대비 8.2% 감소한 2만 5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노지온주 생산량은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및 부패과 발생 증가로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8.6% 감소한 37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만감류의 경우, 레드향 생산량은 열과 피해 증가로 감소하나, 한라봉, 천혜향 등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긴 장마, 여름철 고온·폭염 지속 등으로 노지온주와 과피가 얇은 레드향을 중심으로 열과가 발생하였으며, 열과 발생기간도 길어 피해율³⁾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3) 제주도농업기술센터(2024.10.), 열과율: (노지온주) 2023년 8.2% → 2024년 23.3%, (레드향) 2023년 25.8% → 2024년 35.8%

표 6-14 감귤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21.1	21.3	21.2	21.1	22.0	22.1	22.1	22.0
성목면적	20.4	20.2	19.9	20.1	20.9	20.7	20.7	20.2
유목면적	0.7	1.0	1.3	1.0	1.2	1.4	1.4	1.7
성목단수	3,013	3,161	3,172	3,276	3,048	2,944	2,941	2,815
생산량	615	640	630	659	636	610	608	569

주: 2024년 성목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온주감귤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만감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온주감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지온주의 재배비중은 수익성 저하와 농가 고령화, 품종 전환 등으로 2015년 81.7%에서 2024년 71.7%로 10.0%p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하우스온주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 만감류 중 한라봉은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높지만, 생산성 하락과 소비자 선호 감소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혜향과 기타 만감류는 재배가 확대되며 재배면적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레드향의 경우 열과 피해 발생 등 생산성이 떨어져 재배면적 비중이 4%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표 6-15 감귤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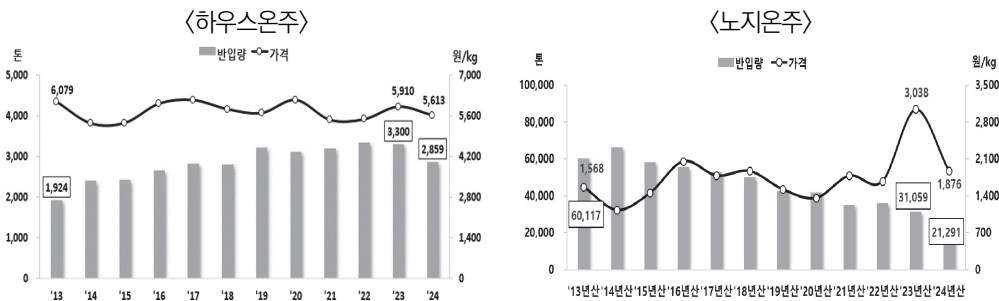
구분	온주감귤				만감류				
	노지	월동	하우스	소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기타	소계
2015	81.7	6.8	1.2	89.7	7.0	1.3	0.7	1.3	10.3
2020	73.6	4.7	1.8	80.1	8.0	4.5	3.9	3.5	19.9
2022	73.0	4.6	2.0	79.6	7.8	4.8	4.3	3.6	20.4
2023	72.0	4.5	2.1	78.6	7.8	5.0	4.5	4.1	21.4
2024	71.7	4.3	2.3	78.4	7.7	5.2	4.5	4.2	21.6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3.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24년 하우스온주 반입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2023년) 대비 13.4% 줄었으나, 가격은 품질 하락과 대체 과일(사과·복숭아·포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0% 하락한 5,613원/kg이었다.
- 2024년산 10~12월 노지온주 반입량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다. 가격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1,876원/kg이었다. 다만, 대과(L~2L) 및 부패과 증가 등 품질 하락으로 상품 비율이 감소하여 품위 간 가격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6-16 | 온주감귤 반입량 및 가격 추이



-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하우스온주 반입량 및 가격은 5~10월까지, 2024년산 노지온주는 10~12월까지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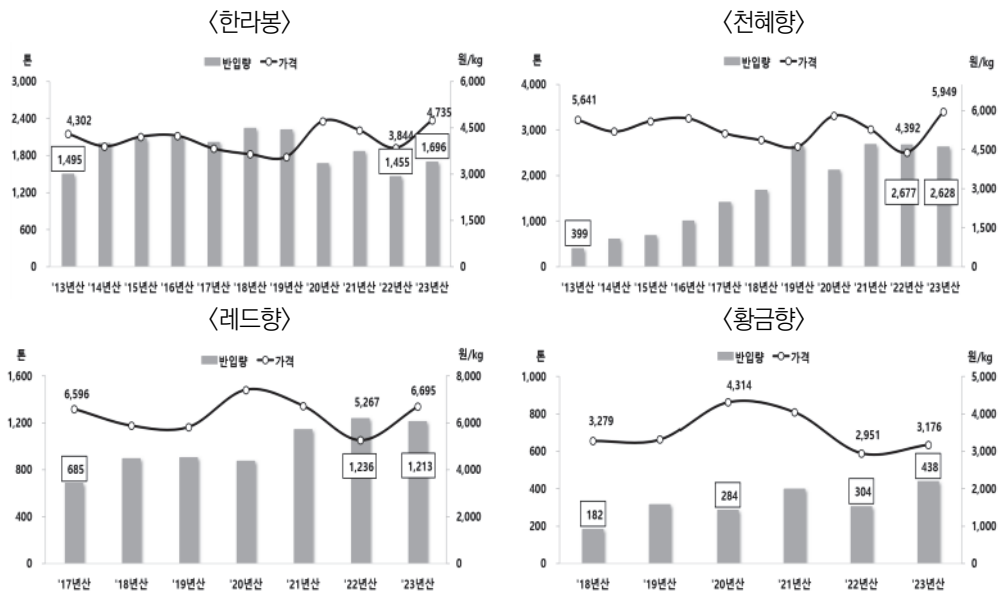
- 2023년산 만감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1만 7천 톤이었다.4) 2023년산 만감류 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지온주 조기 출하 종료 및 대체과일류(사과, 딸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만감류 수요 증가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만감류 중 한라봉은 소비자 선호가 낮아 2017년산 가격이 kg당 4,000원 이하로 하락하였다. 2020년산은 반입량 감소로 4,000원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23년산 가격은 반입량 증가(16.6%)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2% 상승한 4,735원/kg이었다.
- 천혜향과 레드향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23년산 천혜향 가격은 전년 대비 35.4% 상승한 5,949원/kg, 레드향 가격은

4)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2023년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

전년 대비 27.1% 상승한 6,695원/kg이었다. 천혜향과 레드향 가격은 한라봉 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 한라봉 농가의 품종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

- 2023년산 황금향 가격은 만감류 중 출하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과 국내 육성품종 보급 확대 등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6% 상승한 3,176원/kg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가 낮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도 활성화되지 못하여 타 만감류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

그림 6-17 | 만감류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3.1.3. 수출 동향

- 감귤 수출은 노지온주 수확 및 출하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전체 감귤 수출량의 99% 이상이 이루어진다. 2023년산 감귤 수출량은 노지온주 생산량의 1% 수준인 3,877톤이었다.
- 감귤 수출 대상국은 동남아시아와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2019년 중국산 과일이 검역 문제로 수입되지 못하면서 2020년과 2021년산 노지온주가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2023년산 기준 감귤 수출 비중은 러시아가 57.6%를 차

- 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캐나다(12.7%), 미국(9.6%), 홍콩(4.4%), 싱가포르(4.1%) 순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국산 감귤 수입 재개로 2022년산 감귤의 러시아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3년 유럽산 감귤 수입 감소로 인해 수출이 회복되었다.
 - 2024년산(10~12월) 수출량은 노지온주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3,771톤) 대비 12.2% 감소한 3,312톤이었다.

표 6-16 | 노지온주 수출량

단위: 톤

구 분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6,423	6,213	3,036	3,877	3,312	4,415
러시아	4,816	5,172	1,608	2,234	1,921	2,886
캐나다	456	0	397	373	245	409
미국	509	459	522	493	557	487
홍콩	234	223	226	172	142	207
싱가포르	139	169	151	160	29	160
기타	269	190	162	445	338	267

주 1) 수출량은 10월~익년 3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10~12월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관세청

3.2. 수급 전망

3.2.1. 2025년 전망

- 2025년 1월 이후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지온주 출하는 전년(2월 하순)보다 앞당겨진 2월 상순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지온주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열과 발생이 많았던 레드향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줄어들겠으나, 한라봉과 천혜향, 기타 만감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만감류 출하량은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5년 감귤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1.3% 감소한 2만 1,664ha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노지온주의 폐원(노령화 등)과 만감류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여

표 6-18 | 2025년 감귤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은주감귤				만감류				
	노지	월동	하우스	소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기타	소계
2025	15,445	956	481	16,882	1,693	1,167	982	931	4,773
2024	15,802	977	465	17,245	1,701	1,135	996	916	4,747
증감률	-2.3	-2.2	3.5	-2.1	-0.4	2.9	-1.4	1.7	0.6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3.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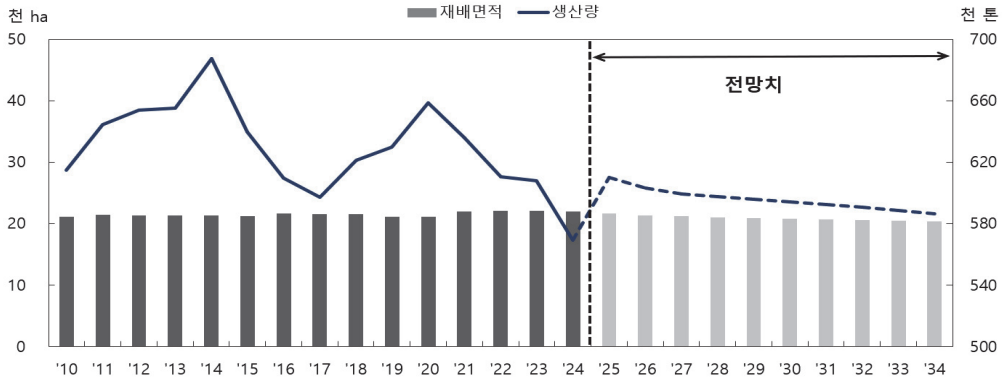
- 감귤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로 2025년 2만 1,700ha에서 2034년 2만 500ha 까지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품종 전환 및 고령화로 인한 폐원 등으로 2025년 1만 9,800ha에서 2034년 1만 8,600 ha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목면적은 품종갱신 및 전환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34년 1,900ha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2025년 감귤 생산량은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1만 톤으로 예상되나, 기상 요인으로 인한 생육 상황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후 감귤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면서 2034년에는 58만 7천 톤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수 증가로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감소로 2034년 감귤 1인당 소비량은 11.4kg으로 전망된다.

표 6-19 | 감귤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22.0	21.7	21.0	20.5
성목면적	천 ha	20.2	19.8	19.1	18.6
유목면적	천 ha	1.7	1.8	1.9	1.9
생산량	천 톤	569	610	596	587
수출량	천 톤	3.2	4.9	5.0	5.3
1인당 소비량	kg	10.9	11.7	11.5	11.4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18 | 감귤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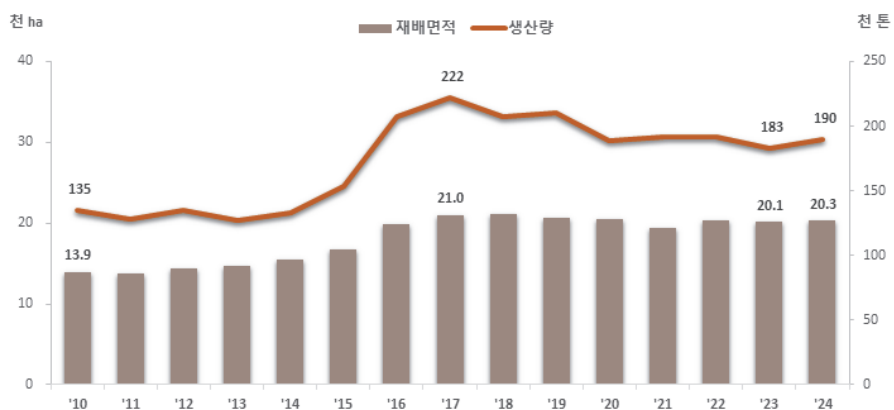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복숭아 재배면적은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포도에서 복숭아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2010년 1만 3,908ha에서 2017년 2만 1,030ha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3년까지 2만 ha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0.7% 감소하였다.
-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2010년 13만 5천 톤에서 2017년 22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기후변화로 병해충 및 생리장해 발생이 늘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2% 감소하였다.

| 그림 6-19 |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2024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대비 0.8% 증가한 2만 294ha이었다. 유목의 성목화로 유목면적은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으나, 성목면적은 3.4% 증가하였다.
- 2024년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9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여름철 고온으로 과비대가 부진하였고 일소피해도 일부 발생하였으나, 개화기 기상 여건이 좋아 착과수가 증가하였고, 철저한 방제로 병해충 발생도 감소하였다. 또한, 장마철 강우로 인한 피해도 적어 세균성구멍병 및 탄저병 피해가 컸던 전년 대비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하였다.

표 6-20 | 복숭아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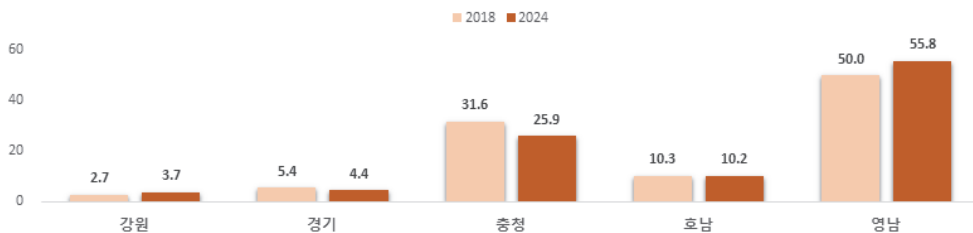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13.9	16.7	20.6	20.5	19.5	20.3	20.1	20.3
성목면적	9.9	10.8	15.4	15.3	15.4	15.3	14.9	15.4
유목면적	4.0	5.9	5.2	5.2	4.1	5.0	5.2	4.9
성목단수	1,357	1,423	1,367	1,234	1,244	1,248	1,228	1,234
생산량	135	154	210	189	192	191	183	190

주: 2024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최대 주산지인 영남지역 비중은 천도계 신규 식재 증가 등으로 2018년 50.0%에서 2024년 55.8%로 5.8%p 상승하였으며, 강원지역은 기후 변화로 신규 과원 조성이 늘어나면서 1.0%p 상승하였다. 경기와 충청지역은 농가 고령화, 도시화 폐원 등으로 각각 1.0%p, 5.7%p 하락하였다.

그림 6-20 | 복숭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단위: %



주: 제주는 호남지역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천도계 재배면적 비중은 신비 등 조생종 신규 식재 및 품종 갱신으로 2020년 16.1%에서 2024년 17.3%로 증가한 반면, 유모계 재배면적 비중은 동기간 감소하였다.

표 6-21 | 복숭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추이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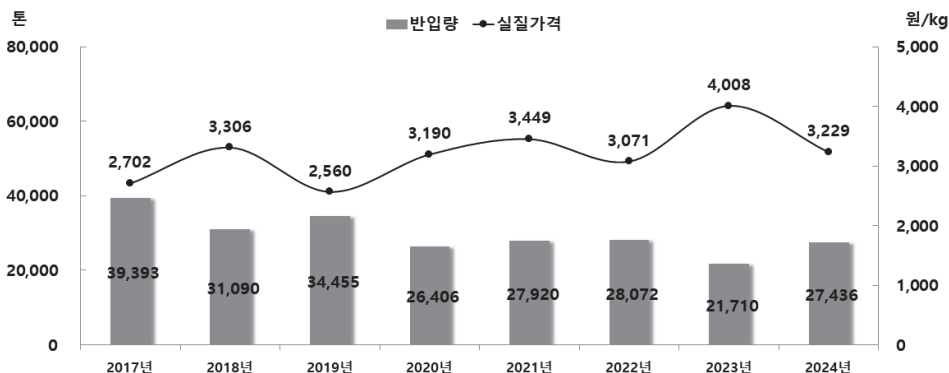
구 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모계	10,957 (78.8)	13,681 (81.9)	17,099 (82.9)	17,149 (83.9)	16,242 (83.4)	16,968 (83.5)	16,748 (83.2)	16,783 (82.7)
천도계	2,951 (21.2)	3,023 (18.1)	3,537 (17.1)	3,301 (16.1)	3,233 (16.6)	3,346 (16.5)	3,379 (16.8)	3,511 (17.3)

주: ()값은 비중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복숭아 반입량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2017년 3만 9천 톤에서 2023년 2만 2천 톤으로 연평균 9.5%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격은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2017년 2,702 원/kg에서 2023년 4,008원/kg으로 연평균 6.8% 상승하였다.
- 2024년 복숭아 반입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2023년) 대비 26.4% 증가한 2만 7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9.5% 하락한 3,229원/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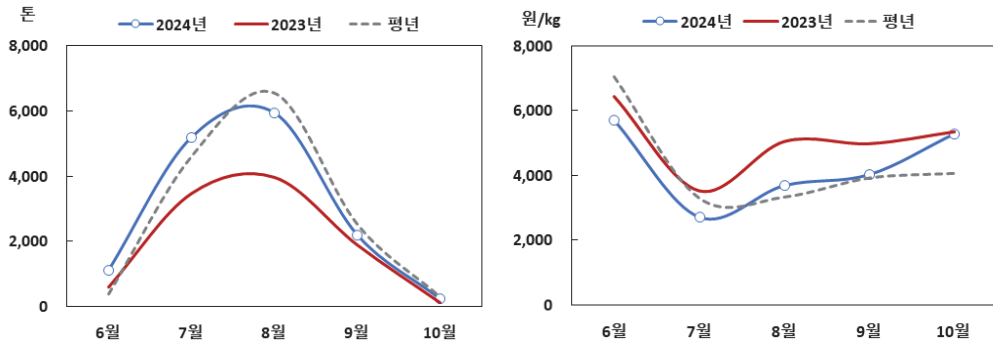
그림 6-21 | 복숭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 2024년 유모계 수확기(6~10월)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5,070원) 대비 15.7% 하락한 4,275원/kg이었다.
 - 6~9월 가격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병해충(세균성구명병 등)으로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반입량이 늘어 전년(4,999원) 대비 19.5% 하락한 4,025원/kg이었다.
 - 10월 가격은 전년(5,354원)과 비슷한 5,279원/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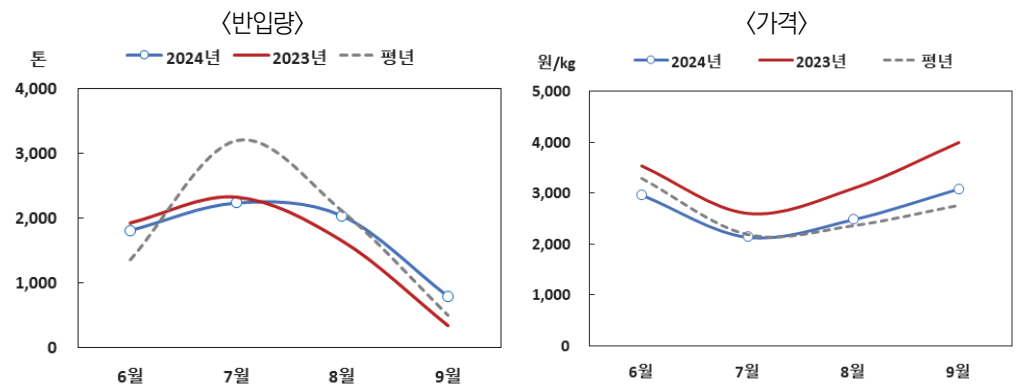
그림 6-22 | 2024년 유모계 수확기 반입량 및 가격
(반입량) (가격)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평년은 2019~2023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 2024년 천도계 수확기(6~9월)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3,311원) 대비 19.4% 하락한 2,667원/kg이었다.
 - 6~7월 가격은 반입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과비대 부진에 따른 품위 저하로 전년 (3,073원) 대비 16.9% 하락한 2,552원/kg이었다.
 - 8~9월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3,549원) 대비 21.6% 하락한 2,782원/kg이었다.

그림 6-23 | 2024년 천도계 수확기 반입량 및 가격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2) 평년은 2019~2023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4.2. 수급 전망

4.2.1. 2025년 전망

- 2025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과 비슷한 2만 254ha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과원 조성 및 품종 갱신 사업 추진, 신비·신선 등 천도계 조생종 위주의 신규 식재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폐원, 도시 개발, 품종 갱신 등으로 감소하나, 유목의 성목화로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6-22 | 2025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구 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25	4,993	15,261	20,254
2024	4,889	15,405	20,294
증감률	2.1	-0.9	-0.2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품종별로는 유모계와 천도계 재배면적 모두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모계 재배면적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생리장해와 병해충 증가, 천도계로의 품종 전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만생종의 신규 식재가 다소 늘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도계 재배면적은 천홍 등 증생종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조생종 면적의 증가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23 | 2025년 복숭아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전년 대비)

단위: %

유모계	천도계
-0.3	0.3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지역별로 강원지역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나, 경기·충청·호남지역은 1~2% 감소하고 영남지역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역은 기후 변화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규 과원 조성 사업 추진 등으로 면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충청·호남지역은 농가 고령화, 도시개발, 이상기후 영향으로 폐원 면적이 늘고 있다. 영남지역은 성목면적이 소폭 감소하나, 품종 전환 등으로 유목면적이 늘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24 | 2025년 복숭아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강원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2025	755	876	5,197	2,061	11,365	20,254
2024	751	889	5,253	2,079	11,322	20,294
증감률	0.6	-1.5	-1.1	-0.9	0.4	-0.2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4.2.2. 중장기 전망

- 복숭아 재배면적은 2025년 2만 300ha에서 2034년 1만 9,600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품종갱신, 폐원 등으로 2034년 1만 4,800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품종갱신 등으로 2028년까지는 증가하나, 이후 2034년까지

연평균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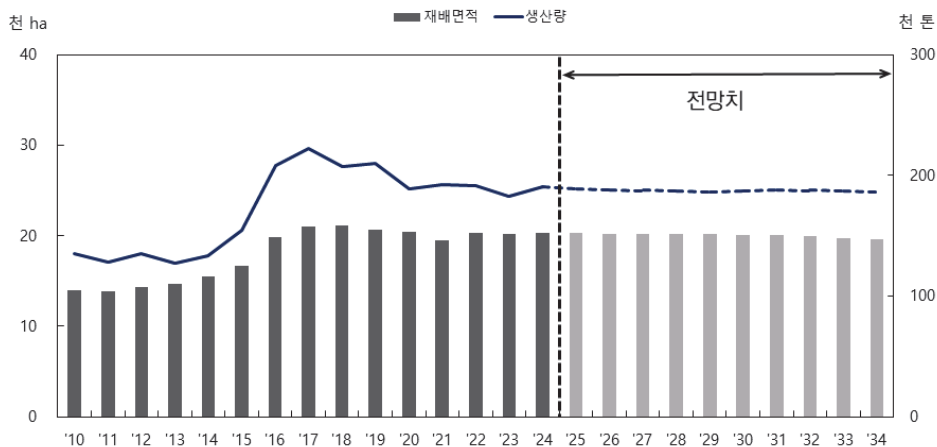
- 복숭아 생산량은 2025년 18만 9천 톤에서 2034년 18만 7천 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 증가로 인해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상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34년까지 3.6~3.7k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25 복숭아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24	전 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20.3	20.3	20.2	19.6
성목면적	천 ha	15.4	15.3	15.0	14.8
유목면적	천 ha	4.9	5.0	5.2	4.8
생산량	천 톤	190	189	187	187
1인당 소비량	kg	3.7	3.6	3.6	3.7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24 복숭아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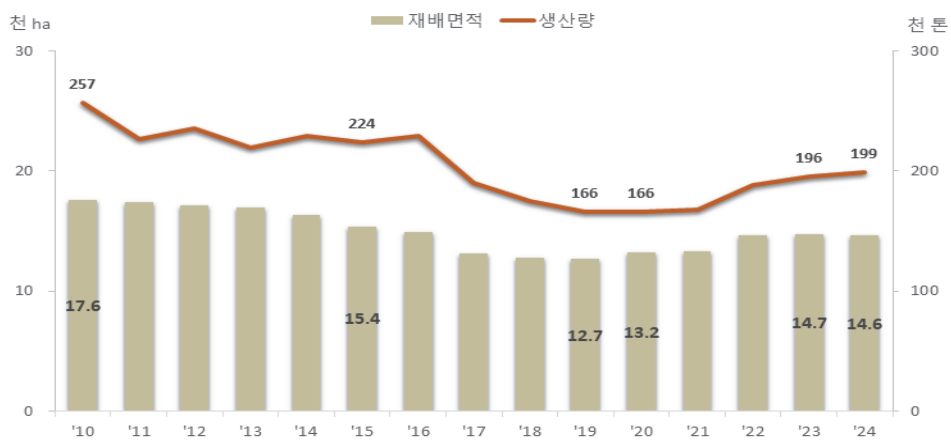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포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도시개발, FTA 폐업지원사업 등으로 포도 농가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0년 1만 7,572ha에서 2019년 1만 2,676ha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 포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23년 1만 4,706ha까지 회복되었다.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20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 그림 6-25 |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24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과 비슷한 1만 4,649ha이었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가 줄어 전년 대비 29.0% 감소한 1,852ha이며,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만 2,797ha이었다.
- 2024년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9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지속된 고온으로 과비대가 부진하였으나, 성목면적이 증가하였고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장마 피해가 발생하였던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26 포도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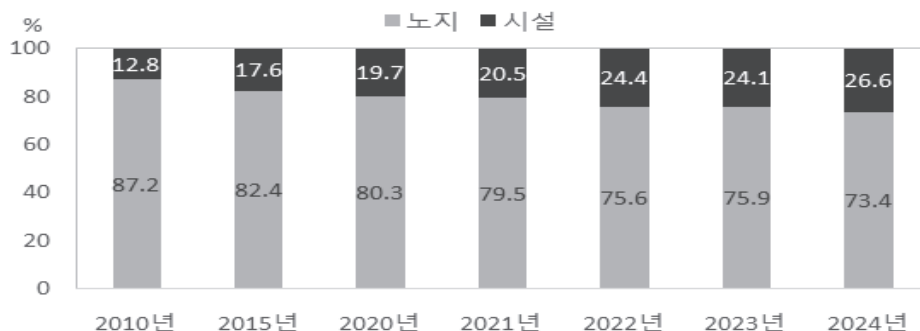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 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17.6	15.4	12.7	13.2	13.3	14.7	14.7	14.6
성목면적	14.9	13.4	10.6	10.0	10.1	11.1	12.1	12.8
유목면적	2.7	2.0	2.1	3.2	3.3	3.5	2.6	1.9
성목단수	1,732	1,671	1,568	1,661	1,673	1,763	1,535	1,683
생산량	257	224	166	166	168	189	196	199

주: 2024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관측센터

- 2024년 시설포도 재배 비중은 전년 대비 2.4%p 상승한 26.6%이다. 이는 노지포도 출하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출하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시설 작형으로의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6-26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지역별 포도 재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경북지역의 지역 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샤인머스켓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포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 포도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4년 강원·경기와 전북지역 포도 재배면적은 2020년 대비 감소하였다.
 - 강원·경기지역은 도시화로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 주력 품종이었던 캠벨얼리 재배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6-27 포도 지역별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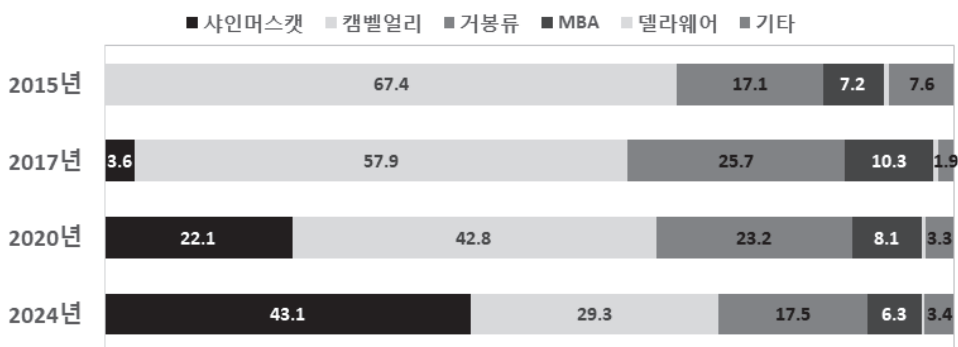
단위: ha, %

구 분	강원·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010	3,185 (18.1)	4,244 (24.2)	8,561 (48.7)	375 (2.1)	785 (4.5)	422 (2.4)	0 (0.0)
2015	2,342 (15.2)	3,474 (22.6)	7,877 (51.2)	475 (3.1)	931 (6.0)	298 (1.9)	0 (0.0)
2020	2,037 (15.5)	2,174 (16.5)	7,301 (55.4)	367 (2.8)	1,017 (7.7)	288 (2.2)	1 (0.0)
2024	1,711 (11.7)	2,951 (20.1)	8,340 (56.9)	442 (3.0)	833 (5.7)	310 (2.1)	59 (0.4)

주: ()값은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2015년 캠벨얼리 재배 비중은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샤인머스켓이 도입된 이후 재배 비중이 감소하면서 단일 품종 재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었다. 샤인머스켓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품종 및 품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샤인머스켓 재배 비중은 2017년 이후 연평균 4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2024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샤인머스켓 43.1%, 캠벨얼리 29.3%, 거봉류 17.5%, MBA 6.3%, 기타품종 3.8%로 추정된다.

I 그림 6-27 |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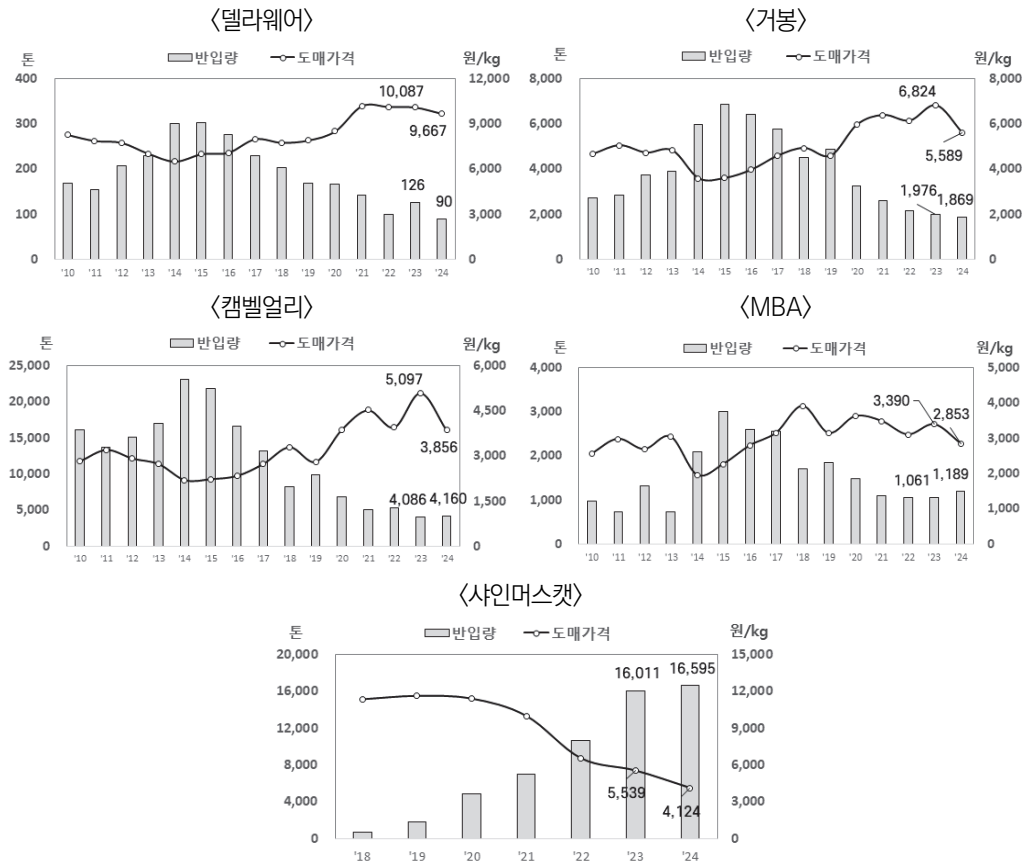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5.1.2. 출하 및 가격 동향

- 품종별 포도 가격은 샤인머스켓이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캠벨얼리를 비롯한 거봉·MBA·델라웨어 모두 2015년 이후 샤인머스켓으로 품종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반입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반면, 샤인머스켓은 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 2024년 포도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2023년) 대비 하락하였다.
- 델라웨어(5~7월)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28.5%)에도 전년 대비 4.2% 하락한 9,667원/kg이었다. 이는 6~7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거봉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거봉(5~11월) 도매가격은 고온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8월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반입량이 5.4% 감소하였으나, 착색 부진 등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18.1% 하락한 5,589원/kg이었다.
- 캠벨얼리(6~11월) 도매가격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장마 피해가 심했던 전년 대비 작황 양호로 반입량이 1.8% 증가하여 전년 대비 24.3% 하락한 3,856원/kg이었다.
- MBA(9~11월)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12.1%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9% 하락한 2,853원/kg이었다.
- 샤인머스켓(6~12월)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3.7% 증가하여 전년 대비 25.5% 하락한 4,124

원/kg이었다. 시설 샤인머스켓이 출하되는 6~8월 가격은 반입량이 41.2%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4% 하락하였다. 노지 샤인머스켓이 출하되는 9~12월 가격은 반입량이 2.4% 감소하였으나, 여름철 지속된 고온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28.2% 하락하였다.

그림 6-28 | 포도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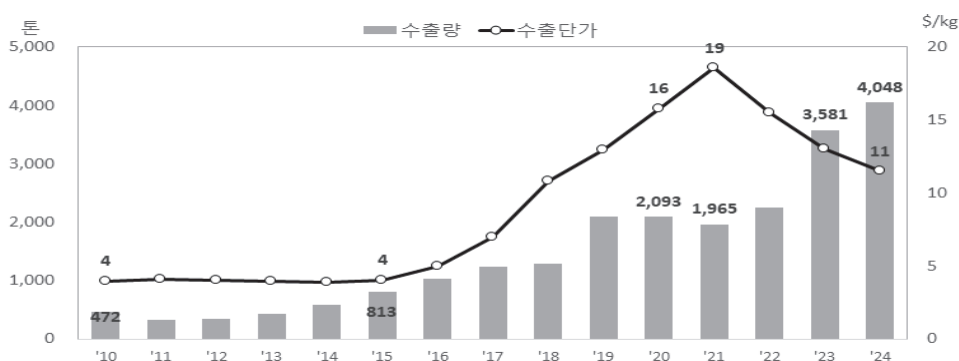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주 2) 캠벨얼리(6~11월), 거봉(5~11월), 델라웨어(5~7월), MBA(9~11월), 샤인머스켓(6~12월)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5.1.3. 수출입 동향

- 신선 포도 수출량의 대부분은 샤인머스켓이며, 2015년 이후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늘면서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신선 포도 수출량은 전년 대비 58.7% 증가한 3,581톤이었다.
 - 수출단가는 2021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수출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2024년 5~12월 신선포도 수출량은 전년 동기(2,833톤) 대비 42.9% 증가한 4,048톤이었다.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13.0달러) 대비 11.8% 하락한 kg당 11.5달러였다.

| 그림 6-29 | 신선포도 수출량 및 수출단가 추이



주: 수출량은 5월~익년 4월까지이며, 2024년은 5~12월 합계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신선 포도는 대만, 미국, 베트남, 홍콩으로 약 60%가 수출되고 있다. 최근 들어 홍콩과 베트남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미국과 대만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2024년(5~12월)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은 대만 40.3%, 미국 14.8%, 베트남 10.9%, 홍콩 10.7%, 기타 23.3%이었다.

표 6-28 | 신선포도 국가별 수출량

단위: 톤

구분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2,102	2,093	1,965	2,257	3,581	4,048	2,151
홍콩	432	462	502	582	428	435	465
대만	5	4	30	230	895	1,629	88
베트남	466	495	475	551	446	442	479
미국	280	192	171	252	391	598	241
중국	412	432	344	125	82	64	294

주 1) 수출량은 5월~익년 4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5~12월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관세청

- 신선 포도 수입량은 국내 포도 생산량이 늘면서 201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수입 청포도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포도는 주로 칠레에서 수입되었으나, FTA 체결국이 다양화되면서 페루, 미국, 호주 등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평년 기준 국가별 수입 비중은 칠레 44.7%, 미국 25.4%, 페루 18.1%, 호주 12.2%이다.
- 2024년 5~12월 신선 포도 수입량은 전년 동기(7,444톤) 대비 5.5% 감소한 7,034톤이었다. 평균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4.3달러) 대비 9.2% 하락한 kg당 3.9달러였다.

표 6-29 | 신선 포도 수입량

단위: 톤

구분	2019년산	2020년산	2021년산	2022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61,380	54,986	41,490	40,434	30,178	7,034	44,753
칠레	29,198	24,655	12,724	22,586	9,850	1,217	19,988
미국	16,045	17,348	11,985	6,056	5,275	4,251	11,362
페루	9,317	6,865	13,787	8,135	6,006	1,088	8,105
호주	6,818	5,968	2,979	3,657	9,010	447	5,481

주 1) 수입량은 5월~익년 4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5~12월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관세청

5.2. 수급 전망

5.2.1. 2025년 전망

- 2025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0.5% 감소한 1만 4,575ha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가 줄어 전년 대비 8.7% 감소한 1,690ha, 성목면적은 샤인머스켓 성목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0.7% 증가한 12,885ha로 전망된다.

표 6-30 | 2025년 포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25	1,690	12,885	14,575
2024	1,852	12,796	14,649
증감률	-8.7	0.7	-0.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작형별로 살펴보면,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노지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포도 성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노지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 증대 기대와 여름철 고온 피해 증가로 출하를 앞당길 수 있는 시설재배 의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6-31 | 2025년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시설	노지	전체
2025	3,969	10,606	14,575
2024	3,891	10,758	14,649
증감률	2.0	-1.4	-0.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지역별로는 강원·경기와 호남지역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1.8%, 0.7% 감소하고, 그 외 지역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원·경기지역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타작물(대추, 사과, 벼 등) 대체 의향 높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호남지역은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워 폐원하거나, 밭작물(콩, 깨 등)로 작목을 전환하고, 영남·충청지역은 과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수용되거나, 고령화로 휴경, 과원 매매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표 6-32 | 2025년 포도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강원·경기	영남	충청	호남	전체
2025	1,680	8,757	2,944	1,194	14,575
2024	1,713	8,782	2,951	1,202	14,649
증감률	-1.8	-0.3	-0.2	-0.7	-0.5

주: 제주는 호남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2025년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타품종, 타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캠벨얼리 재배면적은 고령화로 폐원, 저온 피해, 착색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품종 전환이 이루어져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거봉과 텔라웨어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보다 출하기 가격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 높아 전년 대비 각각 4.4%,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품종 재배면적은 적색계·흑색계 신품종 재배 의향이 높아 전년 대비 2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재배 의향이 있는 품종은 적색계(레드클라렛, 홍주시들리스, 베니바라도, 랑만 홍연, 로얄바인, 미화희, 글로리스타), 흑색계(BK시들리스, 자옥, 코코볼, 슈트벤), 청녹색계(알렉산드리아)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6-33 | 2025년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전년 대비)

단위: %

샤인머스켓	캠벨얼리	거봉류	MBA	델라웨어	기타
-3.9	-1.4	4.4	-2.1	5.4	26.6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5.2.2. 중장기 전망

- 포도 재배면적은 2034년 1만 3,400ha로 2025년 이후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샤인머스켓 성목화로 2026년까지 증가하겠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목면적은 샤인머스켓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늘어 2026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9년 이후 19만 8천 톤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잦은 이상 기상 현상으로 생산량 변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포도 수출량은 샤인머스켓 수출량이 늘면서 2034년 약 6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 등의 노력으로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량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포도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변화에 따라 2027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2034년 2만 8천 톤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나, 수입량이 늘면서 4.3kg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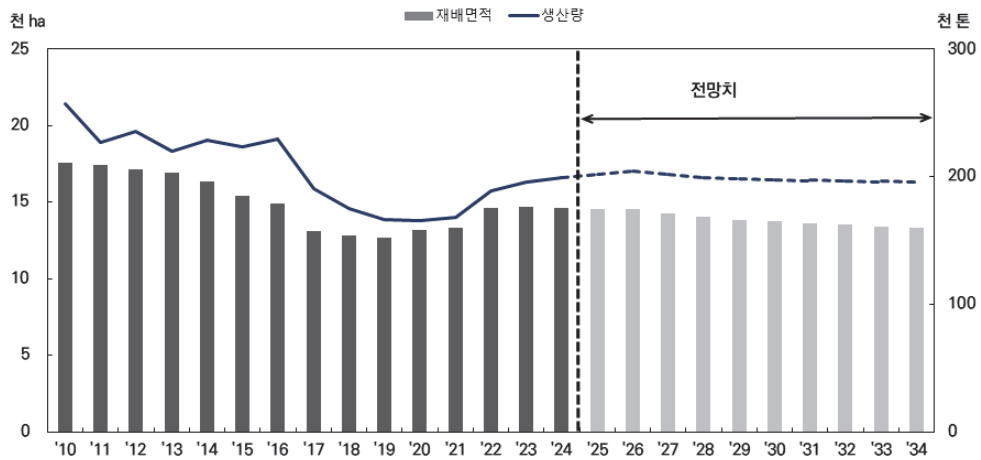
표 6-34 포도 수급 전망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14.6	14.6	13.9	13.4
성목면적	천 ha	12.8	12.9	12.3	11.9
유목면적	천 ha	1.9	1.7	1.5	1.5
생산량	천 톤	199	202	198	197
수출량	천 톤	4.8	5.4	6.0	6.0
수입량	천 톤	25.6	23.9	27.2	27.8
1인당 소비량	kg	4.2	4.3	4.3	4.3

주 1) 수출 및 수입량은 5월~익년 4월 기준
 2)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30 포도 증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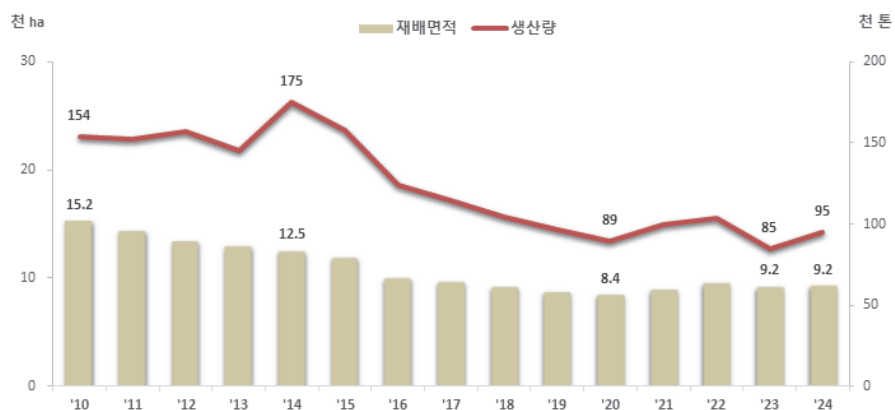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10년 1만 5,244ha에서 2020년 8,404ha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태추 등 신품종 신규 식재로 9천 ha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에 따라 2014년 17만 5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작황 부진 등으로 2020년까지 8만 9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9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31 |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2024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과 비슷한 9,227ha이다. 유목면적은 태추, 감풍 등 신규 식재 및 품종 갱신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129ha이었다.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급경사 산간지 폐원, 품종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8,098ha이었다.
- 2024년 단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9만 5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탄저병 우려에 따른 적과량 감소로 과비대가 부진하였고, 여름철 폭염으로 생리장해(일소 등)가 일부 발생하였다. 하지만 개화기 저온 피해가 컸던 전년 대비 개화 상태가 양호하여 착과수가 증가하였고, 적기 방제 및 방제 횟수 증가로 병해충 발생이 감소하는 등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6-35 단감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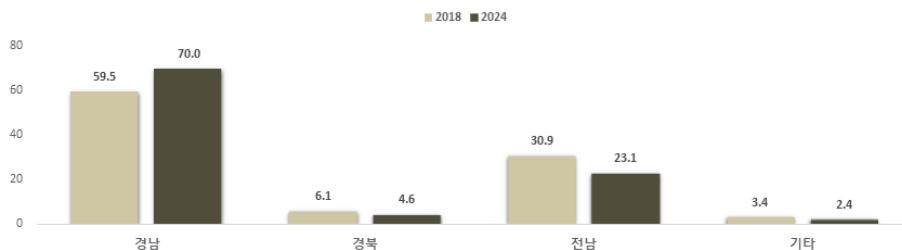
구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배면적	15.2	11.8	8.6	8.4	8.9	9.5	9.2	9.2
성목면적	13.4	10.6	7.8	7.6	8.2	8.5	8.2	8.1
유목면적	1.8	1.2	0.8	0.8	0.7	1.0	1.0	1.1
성목단수	1,144	1,480	1,223	1,174	1,217	1,222	1,030	1,171
생산량	154	158	96	89	100	104	85	95

주: 2024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최대 주산지인 경남지역 비중이 2018년 59.5%에서 2024년 70.0%로 10.5%p 상승하여 산지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7.8%p, 경북과 기타지역은 1~2%p 하락하였다.

그림 6-32 단감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부유가 2018년 80.8%에서 2024년 77.9%로 2.9%p 하락하였고, 차랑과 서촌조생은 각각 0.7%p, 0.8%p 하락하였다. 태추와 기타(감풍 등) 품종의 재배면적 비중은 신규 식재 및 고점 갱신으로 2~3%p 상승하였다.

표 6-36 |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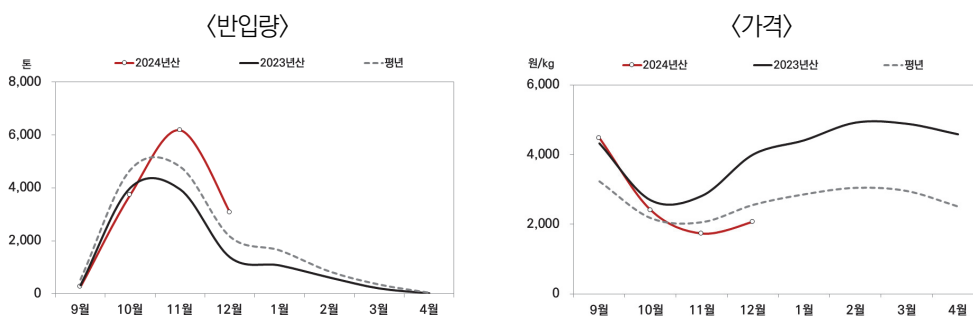
구 분	부유	차랑	서촌조생	태추	기타
2018	80.8	7.7	3.3	2.8	5.4
2021	80.8	7.3	2.9	3.3	5.7
2024	77.9	7.0	2.5	4.7	7.9

주: 기타에는 감풍, 상서, 송분 등이 포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24년산(9~12월) 단감 반입량은 전년(2023년) 대비 37.1% 증가한 1만 3천 톤이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수확이 지연되어 9~10월 반입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으나, 11~12월 반입량은 전년 대비 73.5% 증가하였다. 단감의 9~10월 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위 저하로 전년(3,503원) 대비 1.8% 하락한 3,440원/kg이었고, 11~12월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3,405원) 대비 44.2% 하락한 1,900원/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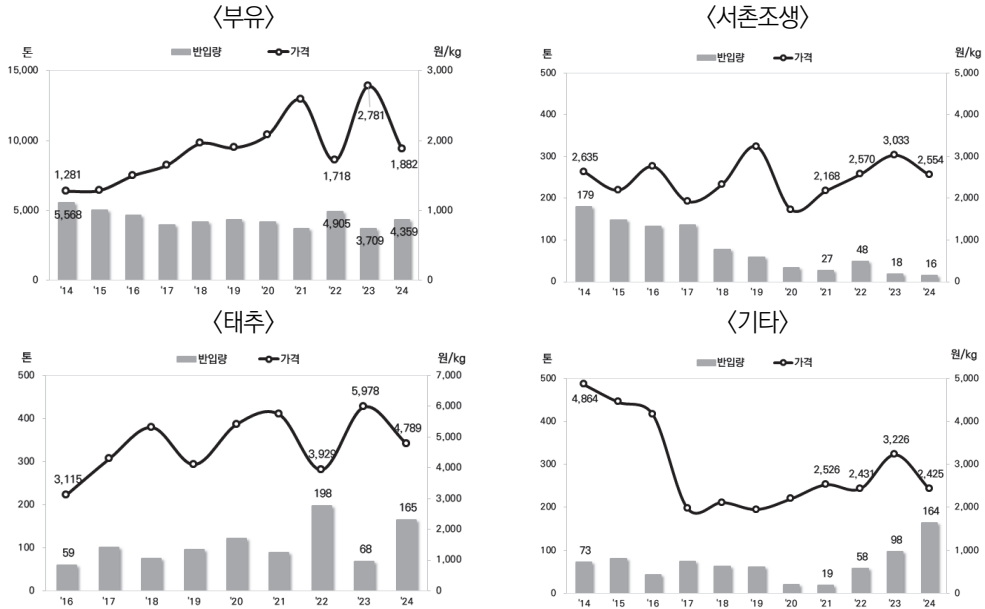
그림 6-33 | 단감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20=100)로 실질화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 부유 수확기(10~11월) 반입량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은 연평균 3.9% 상승하였다. 다만, 2024년 부유 수확기 반입량은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17.5% 증가한 4,359톤이었고 가격은 32.3% 하락한 1,882원/kg이었다.

그림 6-34 | 단감 품종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기타에는 감풍, 원추, 조추 등 포함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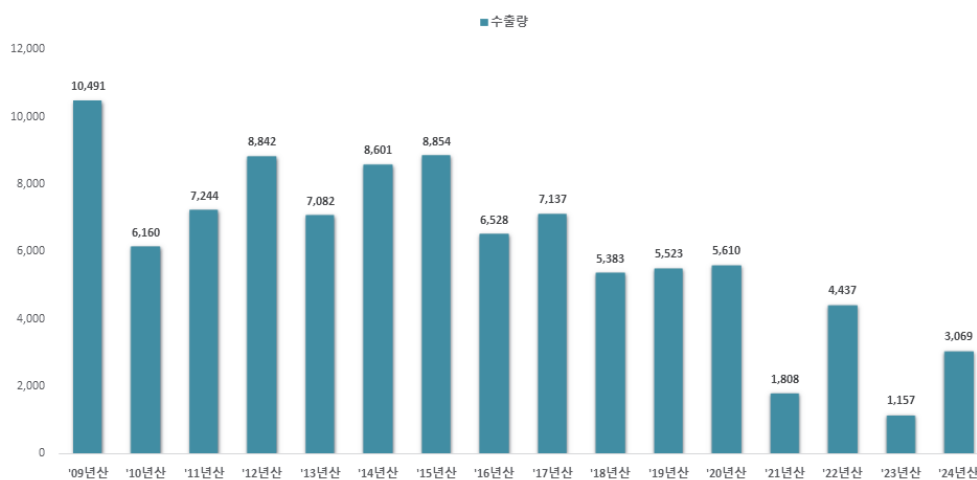
- 서춘조생 출하기(9~10월) 반입량은 수익성 저하로 태추 등 타 품종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2014년 179톤에서 2024년 16톤으로 연평균 21.5% 감소하였다. 2024년 서춘조생 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위 저하로 전년 대비 15.8% 하락한 2,554원/kg이었다.
- 태추 출하기(9~11월) 반입량은 2016년 59톤에서 2024년 165톤으로 연평균 13.7%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소비자 선호가 높아 연평균 5.5% 상승하였다. 2024년 태추 반입량은 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격은 19.9% 하락한 4,789원/kg이었다.
- 기타 품종(감풍, 원추, 조추 등) 출하기(9~11월) 반입량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2024년 기타 품종 반입량은 전년 대비 68.0% 증가한 164톤이었고, 가격은 24.8% 하락한 2,425원/kg이었다.

6.1.3. 수출 동향

- 단감 수출량은 2009년산이 1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산 수출량은 작황 부진으로 내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역대 최저치인 1,157톤을 기록하였다. 2024년산(9~12월) 단감 수출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동기(1,155톤) 대비 165.8% 증가한 3,069톤이었다.

그림 6-35 | 단감 수출량 추이

단위: 톤



주: 수출량은 9월~익년 8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9~12월까지 합계
자료: 관세청

- 국가별로 살펴보면, 단감 최대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로 평년 기준 전체 수출량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이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 필리핀은 과거 수출 비중이 낮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해외 마케팅 강화, 품질 관리 등의 노력으로 수출 비중이 확대(2010년산 4.5% → 2024년산 29.1%)되고 있다.

표 6-37 | 단감 국가별 수출량 및 수출 비중

단위: 톤, %

구분	2010년산	2015년산	2020년산	2023년산	2024년산	평년
전체	6,160	8,854	5,610	1,157	3,069	3,730
말레이시아	3,233 (52.5)	3,294 (37.2)	2,253 (40.1)	163 (14.1)	878 (28.6)	1,289 (34.6)
필리핀	277 (4.5)	993 (11.2)	1,063 (19.0)	443 (38.3)	894 (29.1)	829 (22.2)
싱가포르	878 (14.3)	1,465 (16.5)	684 (12.2)	161 (13.9)	291 (9.5)	506 (13.6)
홍콩	442 (7.2)	1,158 (13.1)	596 (10.6)	87 (7.6)	279 (9.1)	409 (11.0)
캐나다	584 (9.5)	738 (8.3)	245 (4.4)	148 (12.8)	357 (11.6)	212 (5.7)
베트남	351 (5.7)	293 (3.3)	329 (5.9)	68 (5.9)	114 (3.7)	187 (5.0)
태국	218 (3.5)	650 (7.3)	293 (5.2)	39 (3.4)	86 (2.8)	187 (5.0)
인도네시아	41 (0.7)	68 (0.8)	67 (1.2)	9 (0.7)	96 (3.1)	54 (1.4)
기타	136 (2.2)	195 (2.2)	80 (1.4)	38 (3.3)	73 (2.4)	57 (1.5)

주 1) 수출량은 9월~익년 8월까지이며, 2024년산은 9~12월까지 합계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3) ()값은 비중임.

자료: 관세청

6.2. 수급 전망

6.2.1. 2025년 전망

- 2025년 설 성수기(설 전 3주간, 1.8~28.) 및 2월 이후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른 저장량 증가로 전년(2024년) 대비 각각 12.0%,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비대가 부진하여 대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인 품질은 전년 대비 양호하나, 평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1.7% 감소한 9,070ha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태추, 감풍, 상서 등 신규 식재 및 품종 전환이 늘어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산간지 위주 폐원, 고목화로 인한 경제성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38 | 2025년 단감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25	1,158	7,912	9,070
2024	1,129	8,098	9,227
증감률	2.6	-2.3	-1.7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품종별로 부유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이 낮은 차랑과 서촌조생은 태추 등으로의 품종 전환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태추 및 기타 품종(감풍 등)은 농가 선호가 높아 고접갱신 및 신규 식재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39 | 2025년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전망 (전년 대비)

단위: %

부유	차랑	서촌조생	태추	기타
-2.4	-1.5	-0.9	2.4	2.7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지역별로 최대 주산지인 경남지역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 감소, 경북과 전남지역은 각각 1.7%,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40 | 2025년 단감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기타	전체
2025	6,345	2,091	410	224	9,070
2024	6,455	2,128	420	224	9,227
증감률	-1.7	-1.7	-2.4	-0.0	-1.7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4.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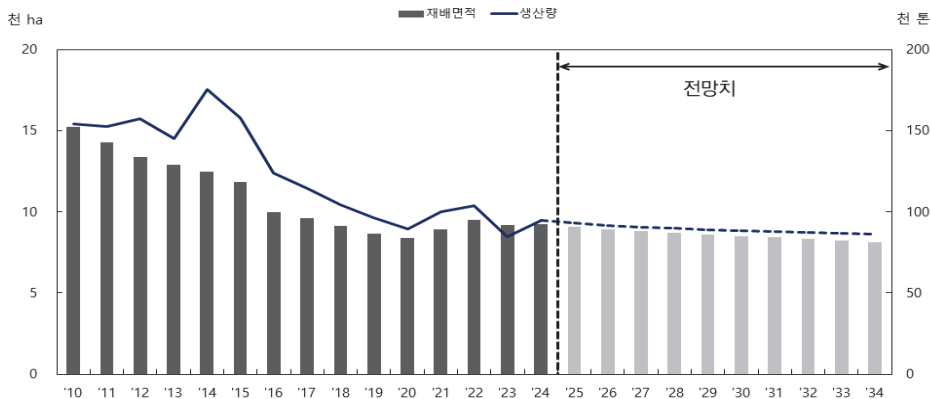
- 단감 재배면적은 2025년 9,100ha에서 2034년 8,100ha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산간지 위주 폐원, 기후 변화 등으로 2034년까지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품종 갱신 등으로 2028년까지는 증가하나, 이후 신규 과원 형성이 줄면서 2034년 1,100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단감 생산량은 2025년 9만 3천 톤에서 2034년 8만 6천 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나,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생산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량은 수출 확대 노력 등으로 2034년 4,400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34년 1.6kg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41 단감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재배면적	천 ha	9.2	9.1	8.6	8.1
성목면적	천 ha	8.1	7.9	7.4	7.0
유목면적	천 ha	1.1	1.2	1.2	1.1
생산량	천 톤	95	93	89	86
수출량	천 톤	2.6	2.9	3.4	4.4
1인당 소비량	kg	1.8	1.8	1.7	1.6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36 단감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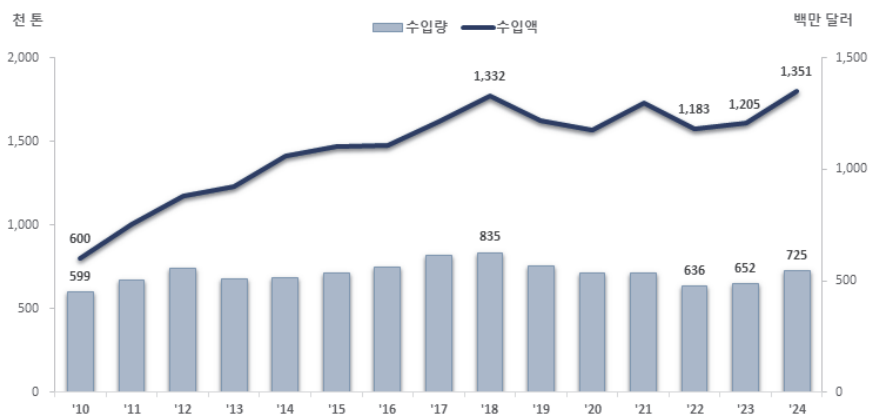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7.1. 수입 동향

7.1.1. 전체 수입 동향

-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 및 수입액은 시장 개방 확대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엘니뇨로 인한 산지 작황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임 상승 및 일정 지연,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은 국내산 과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할당관세가 시행되면서 신선과일 수입이 다시 증가하였다. 2024년 11월까지 신선과일 수입량은 전년(2023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72만 5천 톤이었고, 수입액은 19.0% 증가한 13억 5천만 달러였다.

그림 6-37 |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 및 수입액



주: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자료: 관세청

7.1.2. 부류별·품목별 수입 동향

- 주요 신선과일 부류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열대과일 수입 비중은 2010년 66.9%에서 2019년 61.6%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67.5%로 증가하였다. 키위 등 온대과일 수입 비중은 2010년 12.5%에서 2019년 17.1%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13.6%로 다시 감소하였다. 감귤류 수입비중은 2010년 20.6%에서 2024년 18.9%로 1.7%p 하락하였다.

표 6-42 | 주요 신선과일 부류별 수입량 및 수입 비중

단위: 천 톤, %

구 분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599	714	756	714	713	636	652	725
열대과일	400 (66.9)	447 (62.6)	465 (61.6)	444 (62.2)	453 (63.6)	424 (66.6)	436 (66.9)	489 (67.5)
온대과일	75 (12.5)	113 (15.9)	129 (17.1)	119 (16.6)	119 (16.7)	101 (15.9)	96 (14.7)	99 (13.6)
감귤류	124 (20.6)	154 (21.6)	161 (21.3)	151 (21.2)	141 (19.8)	112 (17.6)	120 (18.5)	137 (18.9)

주 1)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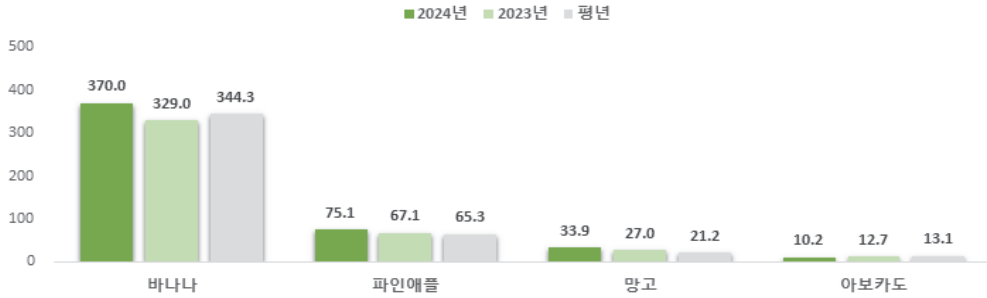
2) ()값은 비중임.

자료: 관세청

- 2024년 11월까지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수입량은 전년(2023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48만 9천 톤이었다.
 - 바나나 수입량은 할당관세와 수입국 다변화(베트남, 에콰도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37만 톤이었다.
 - 파인애플 수입량은 할당관세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7만 5천 톤이었다.
 - 망고 수입량은 할당관세와 주 수입국인 태국산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한 3만 4천 톤이었다.
 - 아보카도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페루산 작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한 1만 톤이었다.

그림 6-38 | 열대과일 품목별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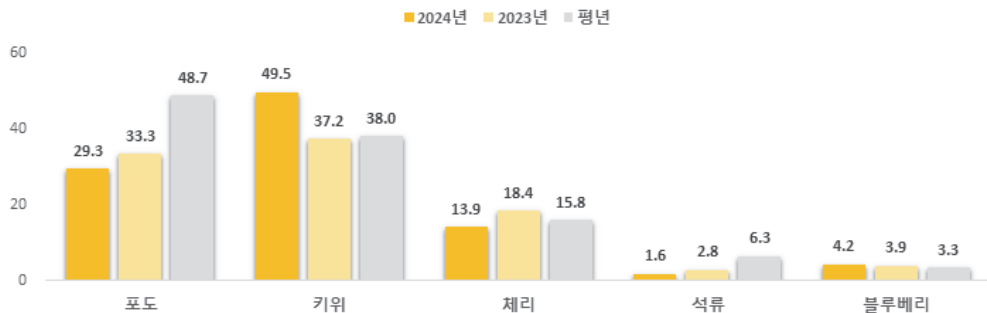


주: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자료: 관세청

- 2024년 11월까지 온대과일(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9만 9천 톤이었다.
 - 포도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칠레산 작황 부진과 국내산 샤인머스켓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2만 9천 톤이었다.
 - 키위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뉴질랜드산 작황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5만 톤이었다.
 - 체리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미국산(워싱턴) 작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한 1만 4천 톤이었다.
 - 석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2천 톤이었고, 블루베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4천 톤이었다.

그림 6-39 | 온대과일 품목별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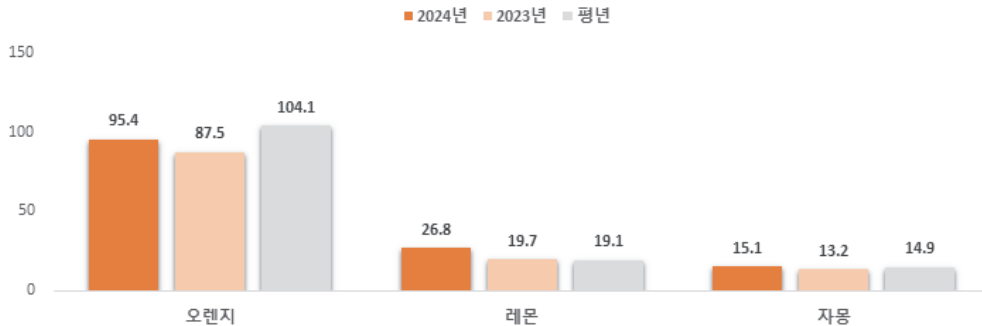


주: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자료: 관세청

- 2024년 11월까지 감귤류(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13만 7천 톤이었다.
 -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산 작황은 부진했으나 호주산 작황이 양호하였고, 할당관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9만 5천 톤이었다.
 - 레몬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칠레산 작황 호조 및 국내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2만 7천 톤이었다.
 - 자몽 수입량은 할당관세 영향으로 남아공산 물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1만 5천 톤이었다.

그림 6-40 | 감귤류 품목별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주: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자료: 관세청

7.1.3. 국가별 수입 동향

- 열대과일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바나나 최대 수입국은 필리핀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필리핀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입 대상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 수입 비중은 18.2%이며, 에콰도르는 11.9%이다. 파인애플은 대부분 물량을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있다.
- 망고는 2024년 산지 작황 호조로 68.4%의 물량이 태국에서 수입되었다. 필리핀산 수입 비중은 과거 대비 크게 감소(2010년 24.9% → 2024년 0.6%)하였으며, 베트남과 브라질, 페루 등으로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 아보카도는 2024년 기준 페루산 수입 비중이 46.1%로 가장 높았다. 과거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으나, 높은 수입 단가 등으로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2010년 77.7% → 2024년 4.8%)하였다.

표 6-43 | 열대과일 수입량 및 국가별 비중

단위: 톤, %

품 목	구 분	2010	2015	2020	2024
바나나	수입량	337,907	363,466	351,994	369,971
	필리핀	(99.6)	(90.4)	(74.1)	(59.5)
	베트남	(0.0)	(0.0)	(2.2)	(18.2)
	에콰도르	(0.3)	(1.6)	(6.2)	(11.9)
파인애플	수입량	60,565	68,373	61,839	75,106
	필리핀	(98.0)	(95.8)	(98.5)	(99.2)
망고	수입량	1,351	13,469	16,889	33,865
	태국	(35.2)	(42.3)	(48.8)	(68.4)
	베트남	(0.0)	(1.6)	(6.6)	(10.9)
	브라질	(0.0)	(0.0)	(2.7)	(9.2)
	페루	(0.0)	(0.0)	(26.8)	(6.7)
	필리핀	(24.9)	(42.4)	(7.0)	(0.6)
아보카도	수입량	457	1,515	13,282	10,185
	페루	(0.0)	(0.0)	(31.5)	(46.1)
	뉴질랜드	(11.6)	(26.6)	(2.1)	(18.3)
	멕시코	(10.7)	(14.5)	(41.9)	(17.9)
	칠레	(0.0)	(0.0)	(1.9)	(10.1)
	미국	(77.7)	(58.9)	(22.7)	(4.8)

주 1)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2) ()값은 비중임.

자료: 관세청

- 온대과일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포도 최대 수입국은 칠레이며, 2024년 기준 포도 전체 수입량의 37.1%를 차지하였다. 이어 호주(29.6%), 페루(18.4%), 미국(14.5%) 순으로 나타났다.
- 키위는 뉴질랜드산 수입 비중이 9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체리의 주수입국은 미국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칠레산 체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석류는 90% 이상이 미국산이며, 블루베리는 칠레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표 6-44 | 온대과일 수입량 및 국가별 비중

단위: 톤, %

품 목	구 분	2010	2015	2020	2024
포도	수입량	34,963	66,193	56,684	29,339
	칠레	(88.4)	(76.5)	(43.2)	(37.1)
	호주	(0.0)	(0.8)	(14.2)	(29.6)
	페루	(0.0)	(13.6)	(12.1)	(18.4)
	미국	(11.6)	(9.1)	(30.2)	(14.5)
키위	수입량	28,515	23,822	35,786	49,544
	뉴질랜드	(79.2)	(71.9)	(97.7)	(97.3)
	칠레	(20.4)	(26.2)	(1.7)	(0.2)
체리	수입량	3,800	12,578	14,215	13,949
	미국	(94.9)	(96.0)	(76.0)	(75.2)
	칠레	(0.0)	(0.0)	(22.0)	(22.7)
석류	수입량	7,402	8,809	9,016	1,627
	미국	(99.9)	(98.1)	(90.9)	(91.6)
블루베리	수입량	24	1,880	2,801	4,240
	칠레	(0.0)	(67.0)	(81.5)	(83.1)
	미국	(0.0)	(33.0)	(18.5)	(14.8)

주 1)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2) ()값은 비중임.

자료: 관세청

- 감귤류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오렌지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미국이며 2024년 기준 미국산 오렌지(네이블)의 수입 비중은 84.1%였다. 다만, 최근 3년간 작황 부진으로 미국산 수입 비중이 감소하였고, 호주산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다.
- 레몬은 2024년 미국산이 5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단가가 낮은 칠레산 공급 물량 증가로 칠레산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자몽은 2024년 할당관세 영향으로 남아공산이 가장 큰 비중(45.3%)을 차지하였다. 과거 미국산의 수입 비중(2010년 90.1%)이 가장 높았으나, 남아공산과 이스라엘산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6-45 | 감귤류 수입량 및 국가별 비중

단위: 톤, %

품 목	구 분	2010	2015	2020	2024
오렌지	수입량	110,055	111,743	115,356	95,444
	미국	(95.3)	(92.1)	(91.8)	(84.1)
	호주	(0.0)	(0.8)	(4.9)	(15.3)
레몬	수입량	5,627	17,274	19,219	26,788
	미국	(82.8)	(74.8)	(72.1)	(57.0)
	칠레	(17.2)	(25.2)	(27.9)	(37.7)
자몽	수입량	7,861	25,010	16,522	15,091
	남아공	(0.0)	(31.3)	(23.2)	(45.3)
	이스라엘	(9.9)	(12.2)	(11.9)	(26.9)
	미국	(90.1)	(56.4)	(64.8)	(25.9)

주 1) 2024년은 11월까지 합계

2) ()값은 비중임.

자료: 관세청

7.2. 수입 전망

- 2025년 주요 과일(신선, 건조, 냉동 포함) 수입량은 할당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81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열대과일과 감귤류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8.0%, 1.8% 증가한 54만 7천 톤, 15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기타 과일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포도는 국내산 샤인머스켓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7.7% 감소한 2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일 수입량은 2025년 81만 7천 톤에서 2034년 86만 5천 톤까지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열대과일과 기타 과일 수입량은 국내 소비 확대 영향으로 2034년까지 각각 57만 8천 톤, 11만 6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귤류 수입량은 오렌지 수요가 줄어 2034년 14만 4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도 수입량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7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46 | 주요 과일 수입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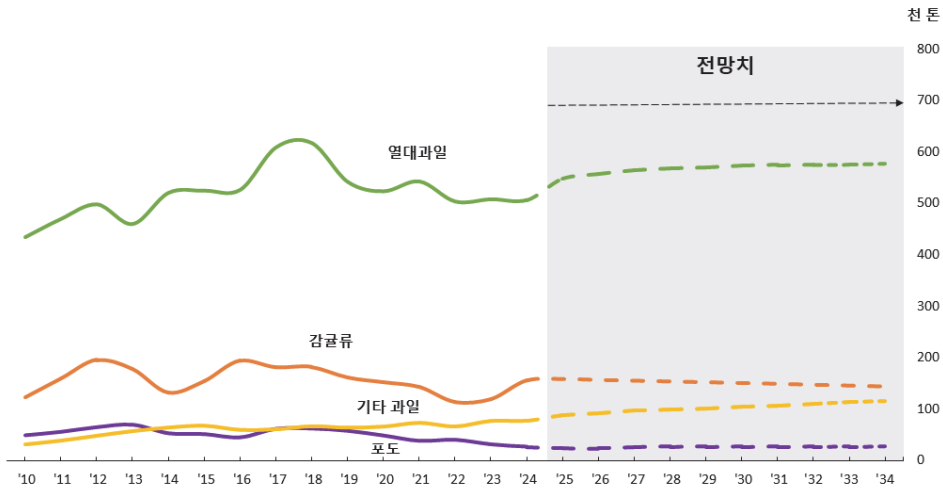
단위: 천 톤

구분	2024	전망		
		2025	2029	2034
전체	765	817	850	865
열대과일	506	547	570	578
감귤류	156	158	152	144
포도	26	24	27	28
기타 과일	77	88	101	116
신선	25	32	40	47
냉동 및 가공	52	55	62	69

- 주 1) 열대과일 수입량은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넛의 합계
- 2) 감귤류 수입량은 오렌지, 레몬, 자몽의 합계
- 3) 기타 과일은 키위, 석류, 체리의 수입량과 과일·견과류의 냉동 및 가공 수입량의 합계
- 4) 포도 수입량은 5월~익년 4월 기준
- 5)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6-41 | 주요 과일 수입량 중장기 전망



자료: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I 부표 6-1 | 사과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수출량 (톤)
2000	29,063	21,259	7,804	2,300	488,960	4,304
2001	26,328	19,186	7,142	2,104	403,583	3,318
2002	26,163	18,533	7,630	2,337	433,165	7,033
2003	26,398	17,933	8,465	2,037	365,354	4,372
2004	26,676	16,889	9,787	2,115	357,180	3,036
2005	26,907	16,379	10,528	2,244	367,517	1,843
2006	28,312	17,888	10,424	2,279	407,621	926
2007	29,358	18,796	10,562	2,318	435,686	1,917
2008	30,006	18,534	11,472	2,541	470,865	5,062
2009	30,451	19,179	11,272	2,578	494,491	9,743
2010	30,992	20,582	10,410	2,236	460,285	7,947
2011	31,167	21,395	9,772	1,774	379,541	3,002
2012	30,734	21,629	9,105	1,824	394,596	1,864
2013	30,449	21,602	8,847	2,285	493,701	3,406
2014	30,702	21,399	9,303	2,218	474,712	1,619
2015	31,620	21,965	9,655	2,654	582,846	4,795
2016	33,300	23,880	9,420	2,414	576,369	3,098
2017	33,601	23,355	10,246	2,335	545,349	2,901
2018	33,234	23,600	9,634	2,014	475,303	2,590
2019	32,954	23,911	9,043	2,239	535,324	2,425
2020	31,598	23,330	8,268	1,809	422,115	1,392
2021	34,359	26,302	8,057	1,962	515,930	1,461
2022	34,603	25,767	8,836	2,197	566,041	1,626
2023	33,789	24,687	9,102	1,598	394,428	312
2024	33,313	24,066	9,247	1,912	460,088	166

주: 수출량은 7월~익년 6월까지이며, 2024년은 7~12월까지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표 6-2 | 배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수출량 (톤)
2000	26,142	13,290	12,892	2,439	324,166	9,589
2001	25,459	14,762	10,753	2,826	417,160	16,263
2002	25,317	17,053	8,291	2,266	386,348	18,089
2003	24,025	17,509	6,520	1,808	316,568	12,860
2004	22,906	17,341	5,597	2,606	451,861	19,819
2005	21,735	17,059	4,706	2,598	443,265	22,627
2006	20,656	17,481	3,175	2,468	431,500	16,215
2007	19,888	17,519	2,369	2,670	467,726	22,307
2008	18,277	16,583	1,694	2,839	470,745	22,846
2009	17,090	15,253	1,837	2,743	418,368	24,673
2010	16,239	14,772	1,467	2,084	307,820	22,079
2011	15,081	13,831	1,250	2,100	290,494	19,254
2012	14,353	13,346	1,007	1,293	172,599	13,696
2013	13,740	12,727	1,013	2,217	282,212	24,482
2014	13,127	12,230	897	2,475	302,731	23,402
2015	12,664	11,782	882	2,215	260,975	23,060
2016	11,164	10,333	831	2,303	238,014	26,166
2017	10,861	10,258	603	2,591	265,757	31,657
2018	10,303	9,683	620	2,098	203,166	27,013
2019	9,615	9,074	541	2,212	200,732	31,045
2020	9,091	8,530	561	1,554	132,580	19,104
2021	9,675	9,122	553	2,305	210,293	24,003
2022	9,680	9,033	647	2,780	251,093	29,518
2023	9,607	8,819	788	2,084	183,802	18,709
2024	9,421	8,529	892	2,092	178,451	15,207

주: 수출량은 8월~익년 7월까지이며, 2024년은 8~12월까지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표 6-31 감귤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수출량 (톤)
2000	26,821	25,105	1,716	2,244	563,470	4,013
2001	26,655	24,822	1,833	2,597	644,731	3,340
2002	26,248	24,638	1,610	2,608	642,525	9,169
2003	24,595	23,026	1,569	2,744	631,929	7,918
2004	22,107	20,942	1,165	2,790	584,353	5,342
2005	21,504	20,628	876	3,093	637,961	3,397
2006	21,382	20,760	622	2,988	620,292	2,663
2007	21,476	20,909	567	3,719	777,547	4,201
2008	21,229	20,709	520	3,073	636,413	1,456
2009	21,396	20,661	735	3,520	727,295	2,822
2010	21,143	20,407	736	3,013	614,871	1,639
2011	21,424	20,268	1,156	3,181	644,631	2,848
2012	21,362	20,170	1,192	3,243	654,031	3,613
2013	21,334	20,470	864	3,201	655,284	3,693
2014	21,338	20,303	1,035	3,386	687,516	3,069
2015	21,265	20,243	1,022	3,161	639,892	2,818
2016	21,682	20,656	1,026	2,952	609,832	2,271
2017	21,587	20,538	1,049	2,908	597,294	1,704
2018	21,572	20,307	1,265	3,059	621,154	1,794
2019	21,180	19,855	1,325	3,172	629,785	2,368
2020	21,111	20,113	998	3,276	658,859	6,469
2021	22,029	20,860	1,169	3,048	635,835	6,248
2022	22,126	20,733	1,393	2,944	610,454	3,092
2023	22,108	20,663	1,445	2,941	607,766	3,909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표 6-4 | 복숭아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2000	13,876	7,688	6,188	2,212	170,044
2001	14,412	8,062	6,350	2,062	166,275
2002	15,598	8,880	6,718	2,112	187,542
2003	15,880	9,622	6,258	1,969	189,413
2004	15,566	9,857	5,709	2,034	200,534
2005	15,014	9,830	5,184	2,276	223,701
2006	13,383	9,645	3,738	2,009	193,816
2007	13,188	9,373	3,815	1,968	184,497
2008	12,638	8,823	3,815	2,143	189,064
2009	12,967	8,813	4,154	1,531	134,939
2010	13,908	9,923	3,985	1,357	134,665
2011	13,795	9,538	4,257	1,339	127,756
2012	14,335	9,584	4,751	1,408	134,916
2013	14,633	9,659	4,974	1,319	127,398
2014	15,539	9,809	5,730	1,357	133,124
2015	16,704	10,811	5,893	1,423	153,882
2016	19,877	14,485	5,392	1,433	207,539
2017	21,030	15,410	5,620	1,442	222,284
2018	21,087	15,569	5,518	1,329	206,889
2019	20,636	15,385	5,251	1,367	210,345
2020	20,450	15,324	5,126	1,234	189,058
2021	19,475	15,447	4,028	1,244	192,094
2022	20,314	15,326	4,988	1,248	191,310
2023	20,127	14,904	5,223	1,228	182,975

자료: 통계청

| 표 6-5 | 포도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수출량 (톤)	수입량 (톤)
2000	29,200	23,206	5,994	2,049	475,594	48	7,581
2001	26,803	22,146	4,657	2,048	453,578	110	7,413
2002	26,007	21,856	4,151	1,931	422,036	108	8,395
2003	24,801	21,209	3,592	1,775	376,430	112	11,107
2004	22,909	19,645	3,264	1,873	367,894	53	13,283
2005	22,057	18,201	3,856	2,096	381,436	205	14,565
2006	19,248	16,419	2,829	2,010	330,049	243	24,907
2007	18,843	15,932	2,911	2,063	328,680	325	31,003
2008	18,240	15,210	3,030	2,193	333,596	430	33,358
2009	17,996	15,144	2,852	1,844	279,296	606	30,656
2010	17,572	14,850	2,722	1,732	257,128	472	40,626
2011	17,445	14,720	2,725	1,539	226,590	323	53,290
2012	17,181	14,644	2,537	1,606	235,181	344	56,806
2013	16,931	14,368	2,563	1,529	219,680	430	65,353
2014	16,348	14,019	2,329	1,633	228,971	583	64,607
2015	15,397	13,385	2,012	1,671	223,695	813	50,078
2016	14,946	13,747	1,199	1,668	229,284	1,032	49,613
2017	13,107	11,868	1,239	1,603	190,265	1,231	44,961
2018	12,795	11,389	1,405	1,540	175,399	1,289	71,481
2019	12,676	10,595	2,081	1,568	166,159	2,102	61,380
2020	13,183	9,987	3,196	1,661	165,906	2,093	54,986
2021	13,349	10,052	3,297	1,673	168,150	1,965	41,490
2022	14,655	11,121	3,534	1,697	188,771	2,257	40,434
2023	14,706	12,099	2,607	1,618	195,747	3,581	30,178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표 6-6 I 단감 수급 동향

구 분	재배면적 (ha)	성목면적 (ha)	유목면적 (ha)	성목단수 (kg/10a)	생산량 (톤)	수출량 (톤)
2000	23,816	16,463	7,353	1,381	227,394	2,960
2001	22,807	16,786	6,021	1,177	197,583	4,625
2002	21,124	16,456	4,668	1,215	199,869	3,552
2003	19,620	16,247	3,373	1,003	163,004	2,051
2004	18,533	15,661	2,872	1,247	195,361	2,780
2005	17,199	14,747	2,452	1,599	235,854	4,539
2006	17,304	15,295	2,009	1,351	206,589	3,337
2007	16,309	14,243	2,066	1,457	207,472	5,052
2008	16,259	14,064	2,195	1,536	216,030	7,123
2009	14,785	12,982	1,803	1,322	171,645	10,491
2010	15,244	13,474	1,770	1,144	154,165	6,160
2011	14,299	12,622	1,677	1,208	152,521	7,244
2012	13,390	11,955	1,435	1,317	157,409	8,842
2013	12,905	11,589	1,316	1,252	145,128	7,082
2014	12,451	11,146	1,305	1,574	175,405	8,601
2015	11,849	10,672	1,177	1,480	157,990	8,854
2016	10,002	9,121	881	1,360	124,020	6,528
2017	9,586	8,853	733	1,291	114,330	7,137
2018	9,108	8,360	748	1,248	104,362	5,383
2019	8,639	7,869	770	1,223	96,271	5,523
2020	8,404	7,614	790	1,174	89,354	5,610
2021	8,899	8,211	688	1,217	99,918	1,808
2022	9,477	8,501	976	1,222	103,851	4,437
2023	9,203	8,206	997	1,030	84,529	1,157

자료: 통계청, 관세청

표 6-7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

단위: 톤

구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
2000	184,213	21,790	421	58	7,921	5,228	194	89		99,017		1,813
2001	194,553	25,536	275	101	6,656	6,417	205	352		92,483		1,814
2002	187,167	31,954	638	117	6,563	10,233	260	738		102,654	3,835	2,041
2003	220,964	36,738	873	165	11,332	12,849	691	2,545		144,881	3,743	2,011
2004	210,109	43,363	832	213	9,970	23,101	766	5,303		154,444	3,747	1,760
2005	253,973	48,763	762	386	13,353	26,751	987	7,485		123,048	4,200	1,533
2006	280,245	59,429	1,185	610	17,291	32,112	1,292	7,298		124,495	4,899	2,252
2007	308,252	77,275	1,616	655	27,802	34,658	4,095	7,438		77,671	4,703	5,934
2008	258,360	67,032	1,570	492	32,483	29,085	3,377	3,670		107,888	5,085	4,890
2009	257,025	55,679	904	325	28,437	27,376	3,860	5,344		71,221	5,142	5,724
2010	337,907	60,565	1,351	457	34,963	28,515	3,800	7,402	24	110,055	5,627	7,861
2011	352,671	73,009	1,892	402	45,189	29,757	4,982	6,642	-	141,961	7,371	9,337
2012	367,673	73,131	2,839	534	54,192	28,945	9,454	8,741	195	173,943	10,630	10,452
2013	313,604	75,917	6,154	722	58,743	20,065	9,136	13,596	746	152,714	13,907	11,580
2014	359,124	75,419	10,599	1,097	59,260	19,590	13,359	10,767	1,477	98,371	13,539	19,491
2015	363,466	68,373	13,469	1,515	66,193	23,822	12,582	8,810	1,880	111,743	17,275	25,010
2016	364,580	77,376	11,347	2,915	48,730	30,736	13,818	5,033	1,968	154,944	15,246	23,169
2017	437,380	78,126	13,426	5,979	51,267	28,147	17,661	5,079	1,972	141,572	15,628	22,998
2018	427,150	77,520	16,954	11,560	59,998	32,923	18,072	7,432	2,079	142,443	17,584	21,269
2019	368,338	70,651	18,116	8,243	69,075	33,303	15,856	8,871	2,386	124,386	18,495	17,786
2020	351,994	61,839	16,889	13,282	56,684	35,786	14,215	9,016	2,801	115,356	19,219	16,522
2021	351,903	61,688	22,292	17,313	49,404	41,001	17,448	7,283	3,606	109,338	17,348	14,507
2022	319,852	67,105	23,199	13,479	39,928	44,350	11,505	1,752	3,533	77,788	20,467	13,530
2023	329,028	67,050	26,962	12,671	33,261	37,193	18,359	2,776	4,119	87,508	19,710	13,246

주: 석류는 기타 코드(0810.90.9000)에서 베트남 수입량(용과) 제외
 자료: 관세청